통일을 기다리는 나날들

- 7 · 4 남북공동성명 직전의 최인훈과『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장문석 (東京外大)

국문요약

이 글은 최인훈의『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0~1972)을 데탕트 국면에서 변화해 가는 남북관계와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월남인'의 대응과 문화적 상상으로 독해하였다. 1970년을 전후한 데탕트로 인해 남북관계의 긴장은 완화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 월남한 소설가 최인훈은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는 사회적 분위기 아래에서『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창작하였다. 1960년대 최인훈은 중립과 제3세계를 주제로 한 소설을 통해 냉전체제 너머의 아시아를 상상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정치적인 주제와 지식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쓰인『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냉전 너머를 향한 최인훈의 상상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처음에는 느슨한 단편소설의 연작으로 계획되었지만, 최인훈이 월간지에 연재할 기회를 얻게 된 이후, 데탕트 아래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월차보고서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월남을 했던 주동인물 구보씨는 뉴스와 신문을 통해 냉전체제의 변동과 남북의 접촉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소설가 구보씨의 1년은 뉴스를 통해 기대와 실망, 놀람과 지루함을 거듭 경험하는 나날이었다. 그 결과 구보씨는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데, 통일은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공공영역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를 탐색하면서, 민중의 일상에 대한 존중과 친밀권에 근거한 지역에서의 대안적 공공권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보씨의 결론을 "광장으로 나오는 공공의 통일론"으로 명명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이라는 사회적 영역의 전문가인 구보는, 분단 이후 금지된 월북작가의 작품을 간행하고자 하였다. 그의 시도는 나누어진 문학사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예술의 다양한 영역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전통'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민중의 생활감각과 대안적 공공성에 근거하여 통일을 이해하고, 사회적 연대로서 평화를 상상한 소설로 독해할 수 있다.

주제어: 데탕트, 남북적십자회담, 7·4남북공동성명, 통일, 지역, 민중, 친밀권, 대안적 공공권, "광장으로 나오는 공공의 통일론", 월남인, 월북작가, 박태원, 김윤식, 전통, 사회적 연대, 평화.

I. 서 – 중립에서 통일로

1960년 11월 최인훈은 600매 분량의 「광장」을 『새벽』에 게재하면서 "舊政權下에서라면 素材가 아무리 口味에 당기더라도 敢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빛나는 四月이 가져 온 共和國에 사는 作家의 보람"을 특별히 기록해두었다.[1]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1960년은 학생들의 해이었지만, 소설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廣場」의 해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김현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2] 이후 최인훈은 『광장』의 작가로서, 그리고 4·19의 작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3] 이러한 평가는 『광장』이라는 문학사적 사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1) 최인훈, "作者所感 - 風聞," 『새벽』, 11월호 (1960), p. 239.

2) 김현, "사랑의 재확인 - 「廣場」 改作에 대하여," 최인훈, 『광장』 (서울: 문학과지성사, 1976), p. 343.

3) 최근에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4·19 세대로 자임하는 비평가 김치수는 "『광장』이 4·19 세대와 함께 이 땅에 태어났다고 보고, 4·19 정신을 가장 정통하게 구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이 인터뷰에서 1940년생으로 김현과 함께 4·19 당일 효자동까지 나아갔던 김치수는 1936년 생으로 4·19 당시 군대에 있었던 최인훈을 4·19 세대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그가 4·19 세대를 "해방 후 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고 한글로 사유하고 한글로 글을 쓴

인정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최인훈 문학을 몇 가지 열쇠말 속에 한정하는 의도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더욱이 최인훈 문학은 서사성보다는 논리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광장』 역시 주동인물인 '지식인' 이명준의 사상과 위치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서술자가 제시하는 '광장', '자유', '사랑' 등 이념의 의미 분석에 그 시각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4]

그러나 한국에서 4 · 19의 의미는 '자유', '광장' 등 추상적 이념형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4 · 19는 중립화통일론을 다시금 공론장에 등장시켰으며, 최인훈은 '중립국행 포로'에 착안한 상상을 바탕으로 『광장』을 창작하였다.[5] 『광장』의 주동인물인 이명준이 '남'과 '북' 모두를 거부하고 '중립국'을 선택했듯, 『광장』은 1950년대 한국의 반공주의적 사회분위기에 대한 반성 또한 담고 있었다. 한국 전쟁 중에 미군 LST를 타고 가족과 함께 남으로 이동하였던 '월남인'으로서 최인훈은 한국 사회의 변모 가능성과 이어진 5 · 16으로 인한 가능성의 교착 및 닫힘, 그리고 동아시아의

최초의 세대, 식민지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김치수 · 최인훈, "4 · 19 정신의 정원을 함께 걷다," 『문학과사회』, 봄호 (2010), p. 321. 최인훈은 식민지 시기 '국민학교' 교육의 경험이 있다.

4) 특히 한국문학 연구의 영역에서 4 · 19는 최근까지 지식인, 학생 중심으로 이해되었고, '빵'과 '자유'의 대립이라는 이항대립 속에서 5 · 16과의 대립적 입장 속에서 이해되었으며, 최근에서야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요청되고 있고 있다. 권보드래 · 천정환, 『1960년을 묻다』 (서울: 천년의상상, 2012), 1장 및 10장 참조.

5) 최인훈, "[나의 첫 책] 제3국행 선택한 한 '전쟁포로' 이야기 -개작 거듭한 장편소설 「광장」," 『출판저널』, 82 (1991), p. 22. 최인훈은 당대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재료로 사용하였고 "작품이 집필되던 당시 필자의 머리에 있던 주인공은 전혀 가공의 인물이었다."라고 회고하였다. 한국전쟁 포로들의 UN관리 체험소 경험에 대한 자기재현적 글쓰기에 관해서는 서은주, "한국전쟁의 기억과 글쓰기 -거제도 포로수용소 체험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12 (2011); 장세진, "은유로서의 포로 -수용소의 삶과 '적/동지'의 구별 정치," 『상허학보』, 46 (2016) 참조.

냉전적 변동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그의 이동과 소설 창작은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한 문화적 실천이었다.[6)]

최근에는 1960~1970년대 당대의 전 지구, 동아시아, 한국의 사회사적 맥락과 공론 영역의 변동을 감안하여, 냉전 아시아의 '외부'에 대한 최인훈의 상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자유', '정치'라는 추상적인 열쇠말을 벗어나 중립과 통일이라는 열쇠말을 통해 최인훈 문학을 독해하면서, 당대의 사회사적 맥락과 문학적(문화적) 몽상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권보드래는 1940년대 중반에서 1970년 전후에 이르는 시기 한국에서 논의된 중립국통일론의 부침 및 지구적 냉전 하에서 반둥회의(1955)에서 비롯하는 제3세계 탈식민국가의 자기 인식 및 실천이라는 맥락을 참조하여, 최인훈 문학에 잠재된 '중립'에 대한 상상과 애도를 재평가하였다.[7)] 공임순은 최인훈 문학에서 한일회담 직후에 등장하여 남북공동성명 이후까지 재현된 '김구'의 형상에 주목하여, 최인훈이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김구의 남북협상론을 소환하여, 남과 북의 정통성 경쟁을 비판하였음을 주목하였다.[8)] 또한 장세진은 냉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의

---

6)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개념은 정근식, "동아시아 냉전 · 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 임형택 외, 『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 2 (서울: 소명출판, 2014), pp. 51~83. 1936년생인 최인훈은 식민지 시기에 초등교육을 받고,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형성 및 고착기인 1945~1953년 북한의 원산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후, 한국전쟁 시기 미군의 함정을 타고 월남하였다. 그의 소설 창작은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제1국면에 해당하는 1954~1970년에 한정되며, 데탕트 이후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가 점진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하자 소설 창작을 멈춘다.

7)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상허학보』, 34 (2012), pp. 261~308. 권보드래 · 천정환, 『1960년을 묻다』의 5장에 수록.

8) 공임순, "1960년과 김구 –추모 · 진상규명 · 통일론의 다이어그램," 『한국학연구』, 35 (2014), pp. 107~113.

변동을 염두에 두고, 최인훈이 수행한 식민성 비판은 한국 안의 식민성 비판 뿐 아니라, 냉전 하 신식민주의의 구조 비판, 제3세계 내셔널리즘의 재인식 등의 논제와 연락됨을 논증하였다.[9]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회색인』(1963~1964), 『크리스마스캐럴』(1963~1966), 『서유기』(1966~1967), 『총독의 소리』(1967~1968, 1976) 등 1960년대 중반 최인훈 소설이 냉전 너머의 사회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으며, 아시아 · 아프리카 회의에서 비롯되는 탈식민 제3세계의 움직임에 예민한 관심을 가졌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1953년 휴전 이후 1960년대까지 한국에서 아시아 · 아프리카의 탈식민 국가가 시도한 '제3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 중립화 통일, 평화 통일, 혹은 남북교류 등에 대한 재현과 상상 등은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억압, 황용주 · 이병주 · 리영희 등 지식인의 필화사건으로 대표되는 언론 통제 등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기 어려운 것이었다.[10] 이병주가 황용주의 필화사건을 제재로 소설을 창작하자, 편집자 신동문은 그 표제에 '소설'이라는 장르명을 붙여 「소설 · 알렉산드리아」라는 표제를 붙이고서야 인쇄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소설에서 필화로 감옥에 갇힌 형은 동생에게 한국을 벗어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이동할 것을 권유할 따름이었다. 최인훈 역시 한국 지식인과 아시아 · 아프리카 지식인과의 조우를, 야간 산책 중의 우발적인 만남으로 재현할 밖에 없었다.[11]

---

9) 장세진, "강박으로서의 식민(지), 금기로서의 제국을 넘어 -1960년대 한국 지식인들의 일본 상상과 최인훈 텍스트 겹쳐 읽기," 『비교한국학』, 24(3) (2016), pp. 165~208.

10) 1950년대 중반 및 1960년대 중반 '반둥회의'에 대한 한국의 지식인 및 언론의 반응에 관해서는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둥정신(Bandung Spirit)'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1955~1965)," 『사이間SAI』, 15 (2013), Ⅱ장 및 Ⅲ장 참조.

11) 이병주와 「소설 · 알렉산드리아」에 관해서는 안경환, 『황용주 -그와 박정희의 시대』 (서울: 까치, 2013), pp. 434~435; 오창은, "결여의 증언, 보편을 향한 투쟁 -1960년대 비동맹 중립화 논의와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문학논총』, 72 (2016),

최인훈은 당대의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변동에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재현하였으며, 검열과 재현의 임계를 염두에 두면서 냉전 아시아의 외부를 탐색하였다. 그는 1960년(『광장』)을 전후하여서는,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한 지식인의 지향을 형상화하였고, 1960년대 중반(『크리스마스캐럴』 등)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의 탈식민적 자기 인식과 실천에 접속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상상을 형상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 이후인 1970년을 전후한 시기 최인훈의 현실 인식과 문화적 몽상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류학자 권헌익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다수의 역사적 현실과 다양한 인간 경험"의 시각에서 냉전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12] 이 글은 그의 제안을 염두에 두면서, 1970년대 초반 지구적 냉전체제에 변동이 감지되고, 남북 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직전의 시기, 소설가 최인훈의 문화적 상상에 주목하여 '통일을 기다리는 나날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920년생으로 '학병세대'에 속하는 서영훈은 1950년 『사상』을 장준하와 함께 편집한 이후, 1953년 3월 적십자사에 입사하였다. 그는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8월 29일 평양에서 열린 본 회담에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13] 서영훈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에 있었다면, 1936년생 최인훈은 역사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할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위치에 있었다. 최인훈은 그 사실에 답답해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실

---

pp. 25~30; 1960년대 중반 최인훈과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의 탈식민 담론의 만남과 어긋남에 관해서는 장문석, "냉전 너머의 아시아를 상상하기?! - 최인훈과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의 어긋난 마주침에 관한 몇 개의 주석," 『한국언어문화』, 62 (2017), pp. 14~24.

12) 권헌익, 이한중 역, 『또 하나의 냉전』 (서울: 민음사, 2013), p. 18.

13)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서울: 느티나무책방, 2017), p. 57.

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행하였다. 간략하게 말해 1960년대의 최인훈이 '지식인'과 '중립'을 강조했다면, 1970년 전후의 그는 '민중'과 '통일'을 논제화하였다. 이 글은 그러한 변화의 양상과 의미가 무엇이며, '통일'을 전면화하면서 최인훈이 상상하였던 냉전 아시아의 외부와 그 상상의 조건이 무엇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동시에, 1936년생 월남민 최인훈이 경험했던 1970년대 초반 냉전 아시아의 작은 역사를 추적하고자 한다.

Ⅱ. 소설가 구보씨의 일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텍스트 형성과정

최인훈의『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훗날 작가 스스로가 "결과적으로 5부작으로 읽혀지기를 바"랬다고 밝힌 5편의 장편소설 중 한 편이다. 그는『광장』·『회색인』·『서유기』·『소설가 구보씨의 일일』·『태풍』5편을 두고,『광장』의 '죽음'으로부터『태풍』의 '부활'에 이르는 일련의 소설을 통해 "미래의 부활, 천당의 영생이 보이지 않게 된 이 잔인한 우리 시대에 우리 힘으로 가능한 자력구원의 길"을 탐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14] 그러나 다른 4편의 소설이 발표 당시로부터 다양한 시각과 맥락에서 거듭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이 소설에 대한 연구는 '피난민', '피난의식', '예술가', '지식인', '에세이성', '의식의 흐름', '일상성' 등의 몇 가지 열쇠말

14)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의식,"『길에 관한 명상』(서울: 청하, 1989), p. 41.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5)]

선행연구들이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했던 것은, 바로 이 소설의 주동인물인 '구보씨'에 집중하는 연구의 방법이었다. '구보씨'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5부작' 중 다른 4편의 소설이 모두 주동인물의 내면과 이동, 그리고 사상이 중요한 소설이라는 점이다. 『광장』의 이명준, 『회색인』과 『서유기』의 독고준, 『태풍』의 오토메나크는 모두 '문제적 개인'으로서, 그의 자기 인식과 이동(mobility)이 각 소설의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16)] 둘째 최인훈의 이 소설은 1934년에 발표된 박태원의 동명 소설에서 제목을 따왔는데, 박태원의 소설은 작가를 소설 속으로 옮겨온 초점화자 '구보'가 하루라는 시간 동안 경성의 거리를 산책하며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에 관한 고현학(考現學)

15) 최근의 주요 연구들 역시 이러한 열쇠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 김인호, "신 없는 시대의 서사적 몸부림 –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동악어문논집』, 33 (1998); 서은주, "최인훈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구재진, "최인훈의 고현학, '소설노동자'의 위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8 (2012); 권은, "피난민 산책자와 1970년 서울 –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론," 『시학과 언어학』, 30 (2015); 이민영,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구보'의 서명과 '후진국민'의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58 (2015).

16) 이 점에서 이들 4편의 소설은 모두 '문제적 개인'의 자아 성장 및 사회의식의 형성이라는 이중의 기획을 목표로 한 교양소설(Bildungsroman)로 읽을 수 있다. 모레티에 따르면 근대의 부르주아 청년이 가진 내면적 불안은, 자유와 행복, 정체성과 변화, 안정과 변모 등 근대성의 모순적 요구에 기인한 것이었고, 그 불안이 젊은이들의 이동(mobility)을 추구하였다. 이 점에서 교양소설은 '근대성의 상징적 형식'이었다.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역, 『세상의 이치』 (서울: 문학동네, 2005), p. 58 참조. 최인훈 문학과 '교양소설'의 형식에 관해서는 권보드래,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10 (1997), pp. 231~249; 복도훈, "범속한 세계에서의 교양의 (불)가능성에 대한 서사적 모험 –교양소설로서의 『광장』에 대하여," 『비교문학』, 61 (2013), pp. 101~122; 장문석, "'우리 말'로 '사상(思想)'하기?! –후기식민지 한국과 『광장』의 다시 쓰기," 『사이間SAI』, 17 (2014), pp. 382~389.

적 탐색을 시도하는 동시에, 소설가로서의 자기의식을 형성하는 소설이다.[17]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대한 연구 역시 작가 최인훈과 유사한 경력을 가진 주동인물이자 초점화자인 구보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그가 가진 특징인 '피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예술가(소설가)'로서의 자기의식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1930년대 박태원의 소설에서 가능했던 분석 방법이 1970년대 최인훈의 소설에는 "그리 잘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선행연구의 아쉬움에서 볼 수 있듯,[18] 아직까지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가진 특성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이 소설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회색인』이나 『서유기』에도 나타나는 것인데, 각 소설의 정체성이 공유하는 점과 갈라지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의 두 가지 전제가 마주한 곤란을 감안하면서, 이 글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텍스트 형성 과정을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문학과지성사판 『최인훈 전집』에 수록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초판 1976, 재판 1991, 3판 2009)을 텍스트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사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가 애초에 기획되고 연재될 때는 현재의 단행본과 같이 15장으로 구성된 한 편의 장편소설이 아니었다.

---

17) 윤대석,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144 (2006), pp. 95~101; 아이카와 타쿠야, "경성 소설가의 글쓰기 -박태원의 초기 소설가 소설," 『반교어문연구』, 41 (2015), pp. 422~431.

18) 권은, "피난민 산책자와 1970년 서울 -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론," pp. 102~103.

〈표 1〉「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및 「갈대의 사계」 표제 소설 서지 및 시간적 배경

연번	단행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73)		최초 발표 서지			시간적 배경[19]
	장	제목				
[1]	제1장	느릅나무가 있는 풍경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월간중앙	1970.2.	1969년이 다 가는, 동짓달 그믐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2]	제2장	창경원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2	창작과비평	1970.봄.	어느 봄날
[3]	-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	신상	1970.겨울.	어느 여름날
[4]	제3장	이 강산 흘러가는 피난민들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	월간중앙	1971.3.	늦가을
[5]	-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4	월간문학	1971.4.	새봄
[6]	제4장	위대한〈단테〉는	갈대의 사계 1	월간중앙	1971.8.	1971년 초여름의 어느날
[7]	제5장	홍콩 부기우기	갈대의 사계 2	월간중앙	1971.9.	1971.7.
[8]	제6장	마음이여 야무져 다오	갈대의 사계 3	월간중앙	1971.10.	1971.8.
[9]	제7장	노래하는 사갈	갈대의 사계 4	월간중앙	1971.11.	1971.9.
[10]	제8장	팔로군 좋아서 띵호아	갈대의 사계 5	월간중앙	1971.12.	1971.10.
[11]	제9장	가노라면 있겠지	갈대의 사계 6	월간중앙	1972.1.	1971.11.
[12]	제10장	갈대의 四季	갈대의 사계 7	월간중앙	1972.2.	1971.12.
[13]	제11장	겨울 낚시	갈대의 사계 8	월간중앙	1972.3.	1972.1.
[14]	제12장	다시 창경원에서	갈대의 사계 9	월간중앙	1972.4.	1972.2.
[15]	제13장	남북조시대 어느 예술노동자의 초상	갈대의 사계 10	월간중앙	1972.5.	1972.3.
[16]	제14장	홍길레진 나스레동	갈대의 사계 11	월간중앙	1972.6.	1972.4.
[17]	제15장	난세를 사는 마음 석가씨를 꿈에 보내	갈대의 사계 12	월간중앙	1972.7.	1972.5.

19)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p. 262 및 구재진, “최인훈의 고현학, ‘소설노동자’의 위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p. 325의 정리를 인용하였다.

최인훈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표제로 소설을 처음 발표하였던 것은 1970년 2월 『월간중앙』([1])이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2」([2])를 『창작과 비평』 1970년 봄호에 발표하였으며, 1년 후인 1971년 3월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4])을 『월간중앙』에 발표한다. 그리고 1971년 8월부터 1972년 7월까지 1년의 시간 동안 「갈대의 사계」([6]~[17])라는 12편의 소설을 발표한다. 이들 15편의 소설을 15개의 장으로 편집한 것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삼성출판사, 1973)이며, 이것이 이후 문학과지성사 전집에 수록된다.

그런데 후일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정리 및 수습되지 않은, 또 다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도 존재한다. 최인훈은 또 다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3])을 『신상』 1970년 겨울호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4」([5])를 『월간문학』 1971년 4월호에 발표하였다. 서지 검토의 결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① 최인훈은 처음부터 현재의 장편소설 혹은 연작소설 형태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기획하지 않았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2」([2])가 거의 동시에 나온 것으로 보아, 애초에 최인훈이 이 두 편은 연작으로 기획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소설은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를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 그가 동료 문인들을 연속적으로 만나거나, 공원(동물원)에서 무척 긴 자유연상에 빠진다는 점 등의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 두 특징은 모두 박태원의 동명 소설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② 그러나 이후 최인훈은 이 연작의 향방에 대해 바로 결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이 두 편이라는 사실이 이 점을 증명한다. 먼저 발표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3])은 몹시 짧은 장편(掌篇)으로, 구보씨는 다방→들판→시골→친구 집→다방→친구 집을 이동하지만 각 이동에 대해서는 3~4줄 정도의 한 단락으로 처리되

어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4」([5]) 역시 장편(掌篇)으로 꿈속에서 구보가 TV를 보는 어른과 아이의 대화를 엿듣는다. 이 두 편의 소설은 이전의 [1], [2]와 마찬가지로 구보씨라는 인물 및 하루라는 시간의 형식은 공유하지만, 서사의 성격이나 밀도에서 질적으로 대별된다. 이에 비해 늦게 발표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4])은 단편(短篇) 한 편의 분량으로, [1], [2]와 마찬가지로 구보씨가 종일 이동하며 친구들을 만나는 소설이다. 즉 [1], [2]를 발표한 이후 최인훈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이라는 표제로 소설을 발표할 때, 처음에는 기존의 형식을 파괴한 장편(掌篇) 형식([3])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결국 다시 기존의 형식을 유지하는 단편(短篇)을 선택하며,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 표제의 소설([4])을 다시 쓴 것으로 보인다.[20]

③ 현재의 단행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17], 12편의 소설은 이후 『월간중앙』에 연재된다. 정확히 1년의 시간 동안 12회 연재한 것을 미루어 보아, 매체에서 1년간 지면을 제공한 것이 창작의 주요한 계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인훈은 「갈대의 사계」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12회 연재하는데, 각각의 소설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처럼 구보씨의 하루를 매달 보여주는 형식이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표제로 연재된 단편 [1],[2],[4]와 이후 「갈대의 사계」라는 표제로 연재된 [6]~[17]은, 구보씨가 등장하고 그의 하루가 재현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따라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5편의 장으로 구성된 한 편의 장편소설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소설에는 연재 시기뿐 아니라 서사의 특질에 단절이 존재한다.

㉠ [1],[2],[4]는 띄엄띄엄 연재된 것에 반해 [6]~[17]은 매달 연재되었다는

20) 장편(掌篇)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4」는 1973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단행본에서 제외되며, 이후 『최인훈 전집 9 – 총독의 소리』에 실린다.

점, ㉡ [1],[2],[4]의 시간적 배경은 다소 막연한 시간으로 제시되지만, [6]~[17]은 정확하게 소설 속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은 ㉡을 위한 매체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최인훈은 자신에게 발표 지면이 1년간 매달 주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설의 제목을 '사계', 즉 1년으로 정했으며 매달의 이야기를 12회에 걸쳐 소설로 창작하였다. 실제 각 연재분은 모두 발표 시기로부터 2달 전을 소설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21]

「갈대의 사계」는 1971년 8월~1972년 7월의 기간에 걸쳐 연재되는데, 각 연재분은 1971년 6월(초여름)~1972년 5월의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애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15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느슨한 연작소설로 이해할 수 있다. 이중 앞의 3편은 띄엄띄엄 발표된 연작소설이며, 나머지 12편은 앞의 3편과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12회 연속으로 매달 연재된 연작소설이다.

[6]~[17]은 동시대 현실을 2달의 차이를 두고 1년의 시간동안 재현하고 추적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 소설이 구보의 하루 일상이 12번(혹은 15번)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일상성'을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취하였다.[22] 그러나 ㉢ 이 소설은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

---

21) 2달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전달의 사건을 바탕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그것을 조판, 편집 인쇄, 발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거의 동시대적으로 당대를 소설화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 10월에 발표된 「갈대의 사계 3」에서 서술자는 8월 20일에 발표된 적십자 회담을 두고 "지난 20일에 있었던" 일로 표현하고 있다([8]:450). 창작 시기를 9월 20일 이전으로 추측할 수 있다.

22) 1976년 김우창은 "구보씨의 생활은 그 좁은 日常性으로 특징지어진다."라고 평하였으며, 이후의 연구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서은주는 "구보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미 · 소의 해빙 무드 등의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문단 주변의 사람들과 정치와 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동물원 구경이나 미술 관람을 통해 내면적 사유를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가끔 어린

달 연재를 통해서 특정 사건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 속의 차이를 포착하고 있다. 그 추적의 대상은 바로 '남북 적십자회담'과 데탕트(Détente, 긴장완화)이다.[23)]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발표된 [1],[2],[4]에서 소설가 최인훈의 여러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 구보씨는 서울의 거리를 산책하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지식인 친구를 만나 토론한다. 그러나 [1],[2],[4]에서 구보씨는 당대 국제정치의 변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구보씨가 데탕트 국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갈대의 사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연재된 [7]에서부터이며, 이후 그 관심은 연재종료까지 매회 이어진다. 다만 이에 대한 관심이 [6]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갈대의 사계」 첫 회를 연재했을 때까지도, 최인훈이 데탕트 국면을 서사화할 계획은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에 없긴 했지만 연재 중에 만나게 된 데탕트와 그 충격이 작가 최인훈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척 컸기에, 최인훈은 자신을 연상하는 초점화자 구보씨를 통해 [7]에서 [17]까지 데탕트 아래서 남한에서의 나날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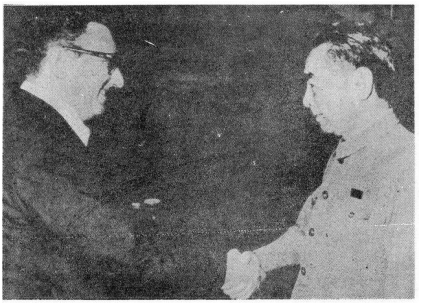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예기치 못하게 도달한 데탕트의 도래와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혹은 기대와 어긋나는 일상에서의 경험과 감각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등장하는 구보씨의 이동, 내면, 의견에 주목하는 동시에, 구보씨가

시절을 추억하는 것 외는 지극히 건조하고 담담한 일상의 반복이다."라고 평하였다. 김우창, "南北朝時代의 예술가의 肖像(해설)," 최인훈, 『최인훈 전집 4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 문학과지성사, 1976), p. 401; 서은주, "최인훈 소설 연구," p. 98.

23) 권보드래는 "1971년 여름부터 1972년 봄에 이르는 시기에 대한 연대기적 기술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숨은 서사"이며, "이 연대기는 7·4남북 공동성명을 소실점으로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 글의 분석은 권보드래의 언급에서 시사받은 바 적지 않음을 밝히며, 감사의 인사를 기록해 둔다.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p. 262, 주석. 3.

현실의 작가 최인훈과 많은 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설 속 구보씨의 고민과 현실 속 최인훈의 행적을 교차하여 소설을 두텁게 독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1970년대 초반 당대 현실의 맥락에서 이 소설을 읽은 연구가 적었고, 그것이 이 소설을 풍부하게 읽지 못하도록 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소설 양식상의 특징을 충분히 감안하며, 행위의 주체가 구보씨와 작가 최인훈인지를 분별하면서 서술하고자 한다.

Ⅲ. "마음이여, 야무져다오"
– '데탕트', 한 월남인의 내면에 관한 월차 보고서



〈자료 1〉 "지난九日 北平을 전격방문한 「키신저」 박사와 그를 환영하는 中共首相 周恩來," 『동아일보』(1971.7.19)

「갈대의 사계」의 첫 연재분이 발표되기 직전인 1971년 7월 16일 한국의 신문에서는 일제히 1면에 미국 AP통신 및 로이터통신과 홍콩 신화사(新華社)통신 발 특종을 보도하였다. 바로 같은 달 9일~11일까지 미국 대통령 닉슨의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 헨리 키신저가 파키스탄을 통해 방중(訪中)하였고 베이징(北京)에서 중공(中共) 수상 저우언라이(周恩來)와 회담을 가졌다는 것, 미중 양국은 "雙方간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하며, 이듬 해 5월 이전에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미국과 '중공'에서 동시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었다.[24]

이 특종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놀라운 事實”이라 반응했으며, 언론사 편집국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世界의 衝擊”이라고 평하였고, “冷戰서 共存의 劇的進展”, “항구 平和노력의 大進展”, “大轉換時代의 開幕” 등의 중제목을 사용하여 신문을 편집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보도 및 평가가 며칠간 이어졌다.[25] 미국 대통령의 특사였던 헨리 키신저는 “北京密使”로 유명세를 탔으며, 그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다.[26]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한국에서도 반향이 컸던 이 사건은 그로부터 2달 후, 최인훈이 발표한 「갈대의 사계 2」(『월간중앙, 1971.9.; [7])에도 서술되어 있다.

> 김문식 씨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공의 화해 기운에 대한 해설기사였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밀사인 키신저 씨와 중공 수상 주은래가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 곁들여져 있었다. 며칠 동안 아마 지구 위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뉴스가 오늘도 다루어져 있는 것이었다. 「密使」라는 표현이 구보씨에게는 괴물같이만 보였다. 구보씨와 같은 삼류 지식인, 삼류 생활자는 이럴 때마다 쓰디쓴 현실 인식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교과서에 씌어 있는 대로 역사가 걸어왔고, 신문에 나는 일만으로 하루가 이루어지는 줄만 알고 사는 민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낀다. 「密使」라면 구보씨는 거의 「傳寄」적인 낱말로 알고 산다. 그런데 어느날 느닷없이 「傳奇」가 「日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의 짜증스러움, 발을 헛짚은 느낌, 그것은 아주 고약한 악몽에서 깨었을 때의 느낌이다. ([7]:402)[27]

---

24) “닉슨발표 全文(전문),” 『경향신문』(1971.7.16); “新華社 발표 키신저 · 周恩來 會談,” 『동아일보』 (1971.7.16); “닉슨 明 5月 이전 中共訪問,” 『동아일보』 (1971.7.16); “中共서도 同時 발표,” 『경향신문』 (1971.7.16) 등.

25) “‘놀라운事實’ 外務部,” 『경향신문』 (1971.7.16); “世界의 衝擊 닉슨 中共訪問 선언,” 『경향신문』 (1971.7.17); “大轉換時代의 開幕,” 『동아일보』 (1971.7.16) 등.

26) 키신저는 “스스로 자기는 歷史를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곤 하는 적극적인 현실참여파 학자”이자 “美國의 對外政策을 주무장관인 「로저스」 국무장관을 제치고 사실상 주무르고 있는” “브레인”이자 “정치전략가”라고 소개되었다. “北京密使 키신저,” 『경향신문』 (1971.7.17)

눈길을 끄는 사실은 지구적 냉전 질서가 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할 때, 구보씨가 흥분과 기대를 표현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몽에서 깬 짜증스러움을 느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냉전의 질서에 변동이 올 수도 있다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는 자신의 당혹과 짜증을 '전기(傳奇)'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전기'가 귀신이 등장하고 저승을 오가는 조선시대의 기괴한 전통적 서사 양식인 점을 감안한다면, 구보씨가 키신저의 방중을 결코 현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생각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보씨의 반응은 '분단 효과'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 구보씨는 철들고부터 이 세상은 빨갱이와 흰둥이로 갈라져 있고 그 두 세력은 물과 불 같은 것이라는 소리 속에 자라고 배우고 지금껏 살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상쩍은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첫 사건은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욕했을 때였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 법왕을 욕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비슷한 곤혹을 느꼈을 것이다. 스탈린은 늘 남을 비판하거나 참회를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산주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 다음 충격이 중소분쟁이라는 것이었다. 이 역시 보고 들은 것이 좁은 구보씨는 중소가 짜고서 미국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싸우는 체하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싸움 흉내치고는 좀 심하지 않은가 싶더니 끝내 국경에서 충돌하는 사태까지 이르더니 급기야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중공 나들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밀사가 감쪽같이 다녀온 다음에야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다. ([7]:410~411)

남북관계에서 1960~1970년대는 치열한 대립과 적대적 위기의 상황에서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며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구한

27) 이 글에서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각 잡지에 발표한 연재본을 이용한다. 앞서 〈표 1〉에서 부여한 연번을 활용하여 ([연번]:면수)의 형태로 표기한다.

결과, 정치 및 경제영역에서 분단효과(division effect)가 집약적으로 발휘되었던 시기였다.[28] 특히 남한에서 군사정권의 출현과 북한에서 '전국토의 요새화'로 요약되는 군사노선의 출현은 남북 갈등의 증대를 가져왔고, 그 갈등은 1960년대 말 청와대 기습사건(1968.1), 푸에블로호 피납사건(1968.1), 울진 삼척 간첩침투 사건(1968.10~11), 미군EC-121 정찰기 격추사건(1969.4) 등으로 표면화되었다.[29]

한국전쟁 중 월남한 최인훈의 1960~70년대 생애사적 경험 또한 남북관계의 '분단효과'에 밀착해 있었다. 1960년 그의 소설 『광장』은 '검열'과 파문을 의식하여 은밀히 인쇄되었으며, 당시 군인 신분이던 최인훈은 '보안성 검토 미필'을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육군본부로 소환되었다. 또한 1964년에는 자신이 소설 「회색의 의자」를 연재했던 잡지 『세대』의 편집위원 황용주가 남북한의 적대상황 해빙을 요청하는 논설을 발표한 것을 이유로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필화사건을 곁에서 지켜보기도 하였다.[30]

물론 서구에서도 '반공'의 사회분위기나 매카시즘은 존재하였지만, 그 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탈식민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더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났다.[31] 1960년대 한국에서는 "사고의 틀을 남북 대결의 코드 이하로 제한·단순화하고, 사유의 단위 또한 대립하는 두 정체(政體) 이상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을" 요구받았다.[32] 구보씨가 흐루시

---

28) 김병로, "분단체제와 분단효과 – 남북관계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향 분석," 『통일문제연구』, 59 (2013), p. 105.

29) 우승지, "남북한 관계 60년 분석 –1948~2008," 『국제지역연구』, 17(2) (2008), p. 134.

30) 정규웅, 『글동네에서 생긴 일』 (서울: 문학세계사, 1999), pp. 83~84; 김치수·최인훈, "4.19 정신의 정원을 함께 걷다," pp. 321~322; 장문석, "냉전 너머의 아시아를 상상하기?! - 최인훈과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의 어긋난 마주침에 관한 몇 개의 주석," pp. 20~22.

31) 홍석률, "냉전의 예외와 규칙- 냉전사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 『역사비평』, 봄 (2015), p. 120.

초프의 스탈린 비판(1956.2.)을 듣고 곤혹을 느끼거나,[33] 중소대립을 끝내 믿지 못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에게 남북의 적대적 대립과 '분단효과'는 압도적인 현실감과 함께 체감되었지만, 지구적 냉전의 변동은 언론을 통해 인지할 수는 있었으나 그 맥락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실감할 수도 쉽게 믿을 수도 없는 "수상쩍은 낌새"일 뿐이었다. 구보씨는 스탈린 사후의 중소대립을 미심쩍은 "싸움 흉내"로만 생각할 뿐이었으며, 그것이 연극이 아니라 현실임을 수용한 것은 1969년 3월 중국과 소련이 국경충돌 소식을 접한 이후였다.[34]

일찍이 최인훈은 『광장』에서 초점화자 이명준의 생각을 빌려, 역사의 '현장'인 서구로부터 떨어져, 서구의 혁명과 민주주의를 '풍문' 혹은 공문으로만 듣고 알게 되는 비서구 후기식민지 지식인의 곤혹스러움을 포착하였다. 그리고 교양(이념)과 현실이 결합하지 못하는 한국을 두고 '풍문'의 나라라고 규정하였다.[35]

---

32) 권보드래 · 천정환, 『1960년을 묻다』, p. 116.

33) 1956년 2월 25일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한국의 언론은 같은 해 『뉴욕타임즈』의 3월 16일 보도를 인용하여,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을 옮겨 보도하였다. "冬宮을 伏馬戰化," 『동아일보』 (1956.3.18)

34) 스탈린 사후 지속된 중소분쟁에 관해서는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 (東京: 中央公論社, 2004), 제4장 및 제5장 참조. 1969년 2월의 중소 국경 충돌을 보도한 한국의 기사는, "中蘇國境 「우수리」江의 珍寶島(蘇名 「다만스키」島)에서 中共軍과 蘇聯軍이 충돌, 많은 死傷者를 낸 事件"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中共과 蘇聯의 國境紛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事件이 발생한 시기로 보나 또 그 政治的 영향을 생각할 때, 이번 事件은 최악의 경우 中蘇의 斷交까지도 가져올지도 모를 中蘇對決의 破局的인 性格을 드러낸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 사건을 "세계 공산주의운동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民族感情을 앞세운 政治攻勢"로 규정하였다. "蘇 · 中共 피흘리는 「울싸움」," 『동아일보』 (1969.3.15)

35) "바스티유의 감격도 없고, 동궁(冬宮) 습격의 흥분도 없다. 기로틴(단두대)에서 흐르던 피를 목격한 조선 인민은 없으며, 동상과 조각을 함마로 부수며 대리석 계단을 몰려 올라가서 황제의 침실에 불을 지르던 횃불을 들어본 조선 인민은

1960년대 전 지구적 냉전체제의 변동과 한국의 분단체제의 강력한 현실적 규제성의 낙차는, 냉전의 완화라는 소식을 들은 구보씨에게 당혹과 짜증을 안겨 주었다. 또한 이것은 단지 구보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씌어 있는 대로 역사가 걸어왔고, 신문에 나는 일만으로 하루가 이루어지는 줄만 알고 사는 민중"([7]:402) 모두의 상황이었다. 구보씨가 보기에 한국의 민중들은 한국 사회의 규율과 규범에 (비)적응하며 한국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 자신의 삶에 큰 결정을 미치는 결정은 그들 스스로의 가시와 재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구보씨는 "'公式'으로 돌아가던 세상이 거짓이요, 탈바가지고 그 뒤에서 구보씨 수준인 인물은 언감생심 짐작도 못할 꿍꿍이가 익어간다는 이 현실의 진행 방식"([7]:402)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당대 언론에서 키신저를 '밀사'라 칭하고 그의 "北平潛行"을 "흡사 「스릴러映畵」" 같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의 오락물인 듯 소개한 언론과 달리,[36] 구보씨는 '밀사'라는 표현을 '괴물'로서 이해하고자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에게 한국 민중에게 '역사'란 공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풍문으로서만 전달되는 것이었다. 구보씨는 그 자신이 역사의 중심으로부터 소외된 "역사 주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37]

물론 비판적 인식과는 별개로, 구보씨 또한 1971년 여름의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만남을 이전까지 공고해보였던 냉전질서가 흔들리는 사

없다. 그들은 혁명의 풍문만 들었을 뿐이다." 최인훈, 『광장』 (서울: 정향사, 1961), p. 153. '풍문'과 '현장'의 대립으로 최인훈 문학을 독해하는 관점은 다음 논문에서 시사받았다. 서호철, "루멀랜드의 신기료장수 누니옥(NOOHNIIOHC)씨 - 최인훈과 식민지 / 근대의 극복," 『실천문학』, 여름 (2012), pp. 30~33.

36) "大轉換時代의 開幕," 『동아일보』 (1971.7.16)

37) 이남희, 『민중 만들기』 (서울: 후마니타스, 2015), p. 58. 이남희는 "한국인이 한국 역사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의식"을 두고 "역사 주체성의 위기"라고 명명하였다.

건, “한시대의 의식의 공준(公準)이 흔들릴만한 무슨 일”([7]:410)로 인식하고 그 추이에 주목하였다. 당대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前後동아시아”는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었다.[38] 1971년 7월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의 회담 이후, 8월 12일 한국 적십자사 총재 최두선은 북한의 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대화를 제안하며, 이틀 뒤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이 화답하여 남북적십자사는 예비회담을 시작하여 1972년 8월까지 25차례의 적십자 예비회담을 진행하였다. 「갈대의 사계 3」(『월간중앙』, 1971.10.; [8]) 역시 이러한 상황을 포착하고 있다.

> 「세상이 바뀔 모양인가?」
> 「글세.」
> 「그렇게만 됐으면.」
> 「좋지.」
>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20일에 있었던 적십자사 대표의 판문점 접촉을 두고 하는 말이다. 8월 20일에 대한 적십자사가 「가족찾기 운동」을 북한 적십자사에 제의했다. 그랬더니 대뜸 북적이 수락한다는 방송을 하고 지난 20일에 양쪽 파견자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제의문서와 수락문서를 바꾼 것이다. 잘난 나라들이 어지럽게 줄타기를 하는 것을 한국 사람은 입을 헤벌리고 구경만 해온 게 근래 몇 해 안쪽 우리 형편인데 말마따나 큰 양반들이 재채기가 심하다 싶더니 끝내 우리가 감기가 들고 만 것이었다.
>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군.」
> 김순남 씨가 이렇게 말했다. ([8]:450)

1970년 전후 프랑스 서독의 독자 외교, 중소 대립으로 인한 냉전의 다극화와 함께,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대등해진 상황은 데탕트 국면을 형성하였다.[39] 구보씨는 처음에는 냉전질서의 변동을 듣고도 그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였다가, 남북적십자사의 대표가 판문점에서 접촉했다는

38) “轉換期 맞은 戰後아시아,” 『경향신문』 (1971.7.17.)
39) 下斗米伸夫, 『アジア冷戦史』, pp. 140~144.

보도를 보고서야 남북관계의 재편과 한국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당시 구보씨는 '재채기'와 '감기'라는 직관적인 표현으로, '큰 양반' 곧 미국과 '중공'으로 대표되는 지구적 냉전 체제의 변동이 '우리' 곧 남과 북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40] 「갈대의 사계」는 연재 종료에 이르기까지, '냉전'이라는 고정관념에 위배되는 일들을 이어서 포착하고 서술하였다.

〈표 2〉「갈대의 사계」 연재에서 포착한 데탕트의 징후 및 구보씨의 반응

연번 및 발표일시		정치적 사건	배경 시간	서술자의 제시 방법
[7]	1971.9.	키신저 저우언라이 비밀회담 공개	1971.7.	신문 읽는 장면 묘사
[7]	1971.9.	미국이 한국의 '홍콩'화한다는 계획	1971.7.	기사 삽입
[8]	1971.10.	남북적십자사 접촉 시작	1971.8.	대화 묘사
[9]	1972.11.	적십자 회담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에 놀람	1971.9.	내면 서술
[10]	1971.12.	중공의 UN가입	1971.10.	기사 삽입
[11]	1972.1.	적십자 회담 진전 소식이 없음에 답답해함	1971.11.	일기 삽입
[12]	1972.2.	월북작가 작품집 출판에 대한 논의	1971.12.	대화 묘사
[14]	1972.4.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	1972.2.	신문 읽는 장면 묘사
[15]	1972.5.	김일성의 미국기자 초청	1972.3.	기사 삽입
[16]	1972.6.	북한에서의 유년시절 회상	1972.4.	회상 서술
[17]	1972.7.	미 대통령의 소련 방문, 핵무기 중단 논의	1972.5.	신문 읽는 장면 묘사

40) 1970년 전후 미국과 중국의 외교문서를 비롯한 자료 접근이 가능해지고, 지구적 냉전 체제,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 남북 관계, 남한 내부의 관계의 동학이 입체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이다. 홍석률, "1970년대 초 남북대화의 종합적 분석 -남북관계와 미중관계, 남북한 내부 정치의 교차점에서," 『이화사학연구』, 40 (2010), pp. 297~322; 우승지, "남북화해와 한미동맹관계의 이해, 1969-197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2004), pp. 97~122; 김연철, "7·4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 『역사비평』, 봄 (2012), pp. 224~248 등 참조.

〈표 2〉에서 흰 바탕의 칸은 구보씨가 신문기사, TV, 라디오 등 언론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냉전질서의 변화를 포착하는 장면을 정리한 것이며, 음영이 들어간 칸은 구보씨의 반응이다. 소설이 마지막으로 연재된 1972년 7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통일 3원칙으로 제시한 7 · 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서술자는 구보씨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전 지구적 사건들을 신문기사를 바로 삽입하는 '몽타주' 기법으로 표현하여 그 충격을 가시화하고자 하였다.[41] 구보씨는 나날이 신문기사를 읽고, 친구나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7 · 4 남북공동성명에 이르는 1년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정치적 질서의 변동에 맞추어, 그 자신도 월북작가의 작품집 출간을 논의하거나 북한에서의 유년시절을 회상하는 등, 지구적 냉전 체제 및 남북관계의 변화를 자신의 삶 속에서 주체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상과 실천은 이전의 구보씨라면 수행하기 쉽지 않았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 1년이 구보씨에게 점증하는 가능성의 시기로만 다가왔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갈대의 사계」에서 서사화한 1년의 기간 동안 구보씨는 착각과 정정, 혼란과 기대 등 거듭되는 시행착오와 복합적인 감정을 통과해야 했다. 가령 남북적십자사가 접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를 품었던 날, 그는 동시에 실미도 특수부대원의 사건의 오보를 경험하였다.

> 다방 TV에는 이십일 명의 무장공비의 처참한 자폭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올 것이 왔구나.」 구보씨는 퍼뜩 이 유명한 말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41) 서사 기법으로서 몽타주(montage) 기법은 이질적인 텍스트를 삽입하여, 서사의 시간과 공간을 낯설게 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서사의 시간적 연속성을 해체하고 연관성이 없는 쇼트들을 병치하여 독자에게 일상적인 시간을 능가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순간을 포착하도록 한다. 이소영, "1930년대 후반 김남천 소설의 이체(異體) -「장날」과 「이리」에 나타난 몽타주(montage)와 구상력(構想力)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1 (2016), pp. 285~286, 292 등 참조.

> 말없이 TV만 쳐다보았다. 구보씨의 몸속에서는 먹구름이 퍼졌다. 어쩐지 너무 날씨가 좋다 싶더니. 미국과 중공이 부드러워지자 이 땅에서도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다고. 냉전산맥의 변두리 골짝 음지에도 시대의 바람이 불어왔다고. 적십자사끼리 흩어진 가족을 찾아주기로 한다고. 이런 하늘 무서운 일이 있어도 좋을지 싶은 일이, 그래도 그렇다니 어리둥절하면서도 그런가 했더니. 인천에 올라온 무장공비 이십일 명이, 민간 버스를 몇 번씩 뺏어 타고 검문소마다 총격을 가해 짓밟고서는 영등포 대방동에 있는 제약회사 유한양행 앞까지 왔다가, 타고 있는 버스가 가로수에 부딪히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수류탄이 터져 전원이 몰사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8]:455~456)

1971년 8월 23일 언론은 처음에는 무장공비가 경인가도에 출현한 것으로 보도하다가, 후에 그것이 오보이며 무장한 사람들의 정체가 실미도 특수부대원인 것으로 정정하였다.[42] 구보씨 또한 당일 저녁 라디오로 진상을 전해 듣고 "놀라 자빠질 이야기"([8]:460)로 자평하며 겨우 웃어넘긴다. 그러나 위의 언급에서 나타나듯, 그는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남북관계가 쉽사리 바뀔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 또한 숨기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오보 때문이 아니었다. 소설에서는 서술되지 않지만, 실미도 특수부대원 사건이 있던 당일 군 관계자는 "남북적십자사 간에 가족찾기 제의와 호응이 오가는 사이 지난 十六日부터 二十日까지 닷샛동안 전 휴전선에 걸쳐 북괴가 十四명의 무장공비를 다섯차례나 침투"했다고 하면서 "북괴정권의 二重性"을 비판했으며,[43] 박정희 정부 역시 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을 과장하곤 했다.[44]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구보씨의 재빠른 체념와 회의는

---

42) "武裝共匪21명 京人街道에 침투,"『경향신문』(1971.8.23.); "武裝怪漢21명 京人街道銃질亂動,"『동아일보』(1971.8.23); "共匪아닌 軍特殊犯 亂動,"『경향신문』(1971.8.24); "亂動武裝怪漢은「軍特殊犯」,"『동아일보』(1971.8.24)

43) "共匪 침투 날로 增加,"『동아일보』(1971.8.23)

44) 김연철, "7·4 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 p. 255.

당대의 감각으로서는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1년의 기간 동안 구보씨는 체념과 회의 속에서도 세계의 변화를 경험한다. “서로 상대편을 두고 괴뢰 즉 꼭두각시라고 부르면서 상대하지 않”았던 “남북 사람이 백주에 버젓이 만나”는 것을 보며 “저러다 혼나려고 저러지”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한 번 만나도 두 번 만나도 아무 탈이 없자” “어리둥절”하게 생각한다([9]:439). 또한 그에게 팔로군이나 ‘중공 오랑캐’로 기억되던 ‘중공’, 즉 “유엔의 적이 유엔에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맞아들여졌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는, “구보씨는 근래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느낌”을 실감하면서, “이 느낌은 여태껏 책을 읽으면서 하긴 그럴 듯한 말인데 손에 쥔 듯이 알아지지는 않던 일들이 조금씩 손에 잡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10]:456).

나아가 그 즈음에는, 미국 통신사가 송고한 기사를 비평하면서, 그 기사의 표면적인 내용은 “거짓말 · 엄살”이며, 실제로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인 무엇이라든가 하는 사람이 지금 북경에 가서 방문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중일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한다([10]:457). 미국 대통령의 ‘중공’ 방문이나 김일성의 미국 기사 초대는 구보씨의 실감에 확신을 주었다. 1년의 시간 동안 구보씨는 시행착오 속에서도 냉전의 변화를 실감하며, 정보에 대한 비평적 판단을 시도하고 있었다.

다만 문제는 정작 남북적십자회담의 진척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신문이나 잡지에 나는 글이나 보도도 알차지 못”한 것에 있었다. 그는 남북적십자회담은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일인데도 어쩐지 겉도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한다([11]:432).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이 소설의 연재 종료에까지 이어진다.

> 1945년에서 어느덧 삼십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러다가 십 년 이십 년이 또 어마지두에 지나고 보면 구보씨의 경우로 보면, 한창 나이를 다 넘

> 기고 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작년에 난데없이 남북 간에 적십자 회담이라는 것이 열렸을 때는 깜짝 놀랐다.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후 회담이 거북이걸음으로, 지금은 실무자 회의라는 단계에 있는 모양이다. 구보씨는 요즈음에는 신문 제1면 가운데로부터 아래쪽으로 짤막하게 실리는 그 실무자 회의 소식이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오늘은 실리지 않았다. 실리지 않았다고 해서 꼭 아무 진척이 없었다고는 짐작 못한다. 이런 회담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리 그런 낌새가 보인 것은 아니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잔뜩 곪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 터졌소 하고 아닌 밤 홍두깨를 맞을 차비를 하는 편이 되레 낫지 않을까 싶다. ([17]:429)

「갈대의 사계」의 마지막 연재분이 다루고 있는 시간은 1972년 5월이다. 소설을 마무리하는 연재분에서 구보씨는 지난 키신저의 방중 이후 1년여의 시간을 위와 같이 회고한다. 신문에서는 미소가 핵중단을 위해 협의에 나선다는 진술이 나오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는 자신이 기다리던 남북적십자회담의 '이후'에 대한 기사는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경과가 '거북이걸음'이었다고 아쉬워한다. 그러나 그는 기사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진척이 없다고 속단할 수는 없으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음을 적어둔다. 실제로 소설이 연재 종료된 직후, "비밀외교"[45]의 결과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구보씨의 예견은 사실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구보씨가 이제 "아닌 밤 홍두깨를 맞을 차비를 하는 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와 불확실한 정보 속에 지내고 있지만, 구보씨는 그 놀라움과 불확실성 자체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구적 냉전이 완화되며 남북관계가 바

---

45) 박광득, "7·4남북공동성명(1972)의 주요 내용과 쟁점분석," 『통일전략』, 14(3) (2014), p. 27. 남북적십자회담을 준비하는 1971년 8월~1972년 7월 예비회담과 실무회담 과정에서 남북의 비밀만남 및 비밀방문에 관해서는 김지형, "7·4공동성명 전후의 남북대화," 『사림』, 30 (2008), pp. 37~39.

뀔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기대와 실망, 깜짝 놀람과 지루함 속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했던 구보씨의 1년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Ⅳ. 광장으로 나온 공공의 통일론 – 민중의 발견과 지역이라는 생활의 장소

연재를 마친 최인훈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작([1],[2],[4])과 「갈대의 사계」 연재분([6]~[17])을 편집하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서울: 삼성출판사, 1973)라는 소설집으로 간행하였다. 최인훈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편집하던 1973년은 이미 유신체제에 들어선 이후였다. 남북적십자회담의 결과, 7 · 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남북은 남북조절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할 따름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통일을 위해 국내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자, "7 · 4 남북공동성명은 유신체제의 명분"이 되어버렸다. 이후 1973년 들어 남북대화는 급속히 동력을 잃었으며, 1973년 6월 남한의 6 · 23선언과 8월 28일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 중단의사 표명이 있었다.[46]

최인훈은 다시금 남과 북의 대화가 닫혀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설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편집하였고,[47] 이때 「갈대의 사계」의 각

46) 김연철, "7 · 4 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 pp. 244~245; 김지형, "7 · 4 공동성명 전후의 남북대화," pp. 40~44; 우승지, "남북화해와 한미동맹관계의 이해, 1969-1973," pp. 113~119.

47)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 삼성출판사, 1973)의 판권면을 확인하면, 이 소설은 1973년 7월 20일에 초판이 발행된다. 편집은 같은 해 늦봄이나 초여름 즈음 마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재분에 새롭게 제목을 부여한다. 소설 속에서 구보씨가 처음으로 남북적십자회담 소식을 듣고 동향 친구와 토론하며, 실미도 특수부대원 사건 오보로 인해 몇 번이나 마음을 쓸어내려야 했던 '긴 하루'를 다룬 「갈대의 사계 3」(『월간중앙』, 1971.10.; [8])에는 「마음이여 야무져 다오」라는 제목을 붙인다. 유신체제의 선포와 닫혀가던 남북대화를 바라보며, 1973년 최인훈은 남북적십자회담의 시작을 포착한 소설에 이제 희망도 절망도 기대도 체념도 아닌, '야무진 마음'을 요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야무진 마음'은 단지 결단이나 다짐 등 심리적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1971년 초여름에서 1972년 초여름에 이르는 1년 동안 구보는 그 이전과 다른 '사회'를 상상하였다. 아래에서는 그가 상상했던 '사회'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정치적 프로이트주의란 것도 있지.」(김순남의 발언 - 인용자)
> 「프로이트?」(구보씨의 발언 - 인용자)
> 「정치의식의 심층에 있는 바람 말이야.」
> 「글세 그게 문제 아닌가? 왜 그걸 정신의 심층에 눌러둬야 하는가? 밝은 햇빛 아래 내놓아서 서로 토론하고 외치고 권유해야지.」
> 「이번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
> 「프로이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마음속 깊은 데 있는 소망을 환자가 깨닫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 스스로 자기 소망을 깨달아서 나타나게 해주는 방법이지. 의사가 환자의 꿈까지 알아맞혀서 주입식으로 가르칠 게 아니고. 」
> 「글세. 그래서?.」
> 「민간의 세력이 원동력이 돼서 이번 운동 같은 게 일어났다면 하는 의견이야.」
> 「적십자면 민간단체 아닌가?」
> 「적십자? 글쎄, 적십자가 민단단체 아니란 말은 아니지. 가족찾기 같은 건 좀 더 토착적인 단체가 주관이 됐으면 하는 거야.」
> 「토착이라니?」

「이것 봐. 그야 서양에서야 적십자가 민간의 생활과 직결해 있겠지. 거기서 생긴 단체 아닌가?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적십자가 이번 일 같은 게 있기 전까지야 일반 민중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번 일 같은 걸 위해서라면 피난민 단체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그런 단체라야 이번 운동의 당사자들과 직접 통해 있지 않아? 적십자래야 이번 일에는 〈관청〉이지. 〈관청〉에서 하시는 일이지. 자기 고향 사람들을 만나본다는 일까지 관청에서 주관한다, 좀 생각할 일이지. 아니면 하다못해 종교단체 연합 같은 형식으로 했더라면 훨씬 뜻이 있지 않았을까.」([8]:452)

적십자 회담 소식을 전하는 신문기사를 두고 1972년 8월 구보씨는 동향의 친구이자 같은 피난민인 김순남과 대화를 이어간다. 위의 대화에 앞서 김순남은 '월남'의 경험을 가진 세대가 통일을 주도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나, 구보씨는 그에 반대하여 통일은 특정 세대나 위치의 인물들이 주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김순남은 이번 적십자회담을 두고 현실정치의 표면에 가려 보이지 않던 심층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구보씨는 그 심층을 "밝은 햇빛 아래" 공공영역에서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국문학 연구자 방민호는 월남인 및 그들의 정신적 지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는데, 첫째 유형은 고향의 장소성 회복의 경향, 둘째 유형은 고향으로의 회복을 억제하고 현실 상태에 적응하고자 하는 경향, 셋째 유형은 다른 차원의 미지의 고향을 탐사하는 경향이다.[48] 이 점에서 김순남은 월남인으로서 정체성을 견지하며 고향이라는 장소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첫째 유형의 지향을 가진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보씨의 경우는 보다 섬세한 고찰을 필요로 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최인훈의 1960년대 중반 소설을 분석하면서 최인훈을 셋째 유형으로 이해하였다.

---

48)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7(2) (2015), pp. 166~167.

결론을 당겨서 말하자면, 이 글 또한 최인훈이 기존의 고향이 아닌 보다 이상적인 미지의 고향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그러한 고향을 '환상' 속에서 발견했다면,[49] 1970년 데탕트 국면에서 그는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에서 새로운 '고향'을 현실적으로 상상하고자 했다고 판단한다.

구보씨는 자신을 신문 외에 다른 정보 획득 수단이 없어, 비밀 회담이 공개될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민중'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역사주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구보씨가 선택한 길은 정치적 저항운동을 통한 주체화의 경로가 아니었다. 최인훈 역시 '민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때의 '민중'은 1960~1980년대 민중운동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정치적 주체로서의 의미보다는,[50] 평범한 사람, 강한 권력이나 고도의 지식과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보통의 시민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그리고 최인훈은 일상과 생활의 감각을 존중하며, 친밀권과 공공권이라는 시각에서 '민중'을 이해하고 주체화하고자 한다.[51]

---

49) 물론 '환상' 속에서 고향을 발견하는 것이 한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서유기』에서 독고준이 보여준 W시로의 여정은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세림은 독고준의 여정이 "자신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건물들이 파괴되고, 헤테로토피아의 고향이 전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과정이었으며 그 결과 "독고준은 비로소 역사에 침식되지 않는 하나의 자아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평하였으며, 김진규는 『서유기』의 독고준이 도달한 "비인(非人)으로서의 자기인식은 '장기판 위의 행위자'의 자기 소외 극복 모색의 한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 전후문학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하였다. (서세림, "월남 작가 소설 연구 -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 205; 김진규,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자기소외의 극복 모색 -행동과 주체 정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p. 307)

50) 이남희, 『민중 만들기』, pp. 55~124.

51) 구재진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중 [4], [8], [9]를 독해하면서, "1970년대의 구

구보씨는 적십자회담에 주목하면서도 그 정치적 효과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적십자사가 서양에서는 민중의 삶과 밀착해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관청'에 다름이 아니며, 그것은 민중의 삶과 떨어져있다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당시 대한적십자사의 회담대표는 중앙정보부 협의조정국장 정홍진이었으며, 그는 북한의 회담대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직속 책임지도원 김덕현과 함께 각국 정부와의 협의 아래 비밀 회담을 진행하였다.[52] 구보씨는 국가 단위의 협상보다는 종교단체를 예로 들면서 민중이나 민간의 요청에 의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53] 특히 그는 민중의 요청이 "밝은 햇빛 아래 내놓아서 서로 토론하고 외치고 권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점에서 그는 통일 논의를 공공의 영역으로 옮겨갈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보씨가 판단하기에도 1970년 당대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을 담당할 주체나 공공의 영역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고, 이제 형성해야할 것이었다. 구보씨는 자신에게 '私'에 대한 감각은 몹시 사무치지만, '公'은 감각의 실감이 어렵고, 그 결과 '私'와 '公'의 올바른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자평하였다. 그 이유는 "세상의 지평선이 보이는 「公」

보, 나아가 최인훈은 지식인의 위치 조정이 민중의 문제에 대한 천착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민중을 바라보는 구보씨의 시각에 민중의 이상태와 민중의 현실태 사이의 분열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구재진, "최인훈의 고현학, '소설노동자'의 위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pp. 316~319. 이 글은 선행연구에 동의하면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전체를 연구의 시각 아래에 두고, 구보의 자기 이해가 민중들과 삶을 공유한 경험 위에서 수행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52) 김연철, "7 · 4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 p. 235; 박정진, "냉전시대 한반도 갈등 관리의 첫 실험, 7 · 4남북공동성명," 『북한연구학회보』, 16(1) (2012), p. 308; 김지형, "7 · 4공동성명 전후의 남북대화," p. 39.

53) 구보씨는 그 예로서 종교단체의 연합을 들고 있다. 역사적으로 7 · 4 남북공동성명 이후 한국의 종교계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 이어갔다. 이찬수, "한국 종교의 평화 인식과 통일 운동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3 (2013), p. 287.

의 세계 속에 있는 개인을 그리자면, 그 사회에 「公」이, 공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公」은 워싱턴에 모스크바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 세월이 구보씨의 피난 살림이었"기 때문이다([8]:461).

최인훈의 다른 소설까지를 염두에 두자면, 그는 식민지와 냉전,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근대사의 전개로 인해 한국에서는 공적 영역의 형성은 쉽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최인훈은 「주석의 소리」에서 상하이 임시정부의 주석(김구)의 목소리를 빌려서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가 우리들에게 국가와 사적 활동 사이에 있는 건전한 감각을 해체시키고 망국적인 이기주의의 심성을 배양한 것은 틀림없"다고 비판하면서 그 결과 한국에는 '공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부재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54] 또한 해방 이후에도 지하에서 활동하는 가상(假想)의 조선총독은 해방 이후 "남쪽 주민들"은 서구적 "시민사회로 조속히 옮아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냉전체제 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평하였다.[55]

특히 월남의 경험을 가진 피난민인 구보씨(혹은 최인훈)에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더더욱 어려웠다. 고등학교 시절 가족과 함께 LST를 타고 원산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최인훈은 목포와 서울을 전전하며, '피난민'으로서 20대와 30대 시절을 보냈다. "피난민이자 독신자인 구보씨에게는 이러한(서울의-인용자) 주택가는 늘 두려움에 가까운 힘을 느끼게 한다."([7]:401)라고 서술에서 볼 수 있듯, 그는 어떤 사회나 공공의 영역 속에 자신의 정위하지 못하였다.

피난민으로서 자신의 결핍을 대리충족하듯, 1960년대 초중반 최인훈은 몇몇 소설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그는 「GREY倶樂

54) 최인훈, "주석의 소리," 『월간중앙』, 6월호 (1969), p. 369.
55) 최인훈, "총독의 소리 Ⅱ," 『월간중앙』, 4월호 (1968), p. 418.

部 顚末記」(『자유문학』, 1959.10)나 「회색의 의자」(『세대』, 1963.6~ 1964.6; 『회색인』)를 통해 사회, 혹은 공동체를 상상하는 이들을 등장시킨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공동체는 지식인 중심의 공동체로 그 성격이 한정되거나, 대낮의 빛으로 은유되는 공적 영역에서가 아니라 어두움과 "회색을 사랑하는 자로 자처하는" 비밀결사에 불과하였다.[56] 나아가 그는 그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주동인물이 그것에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거리감 또한 형상화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최인훈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통해서 "밝은 햇빛 아래" "민중"의 "토론"으로 형성될 공적인 영역을 요청하고 있다.

최인훈의 관점 변화는 한편으로는 데탕트로 인해 냉전질서와 남북관계에 변화가 오고 한국 사회의 질서와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식인-작가인 구보씨가 서울의 주변부라는 생활의 공간을 발견하고, 지역의 '민중'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친밀권과 공공권의 관계를 다시 사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작([1],[2],[4])과 「갈대의 사계」 연재분([6]~[17])은 광화문 주변을 산책하는 구보씨의 일일을 서사화한다는 점은 공유하지만, 구보씨의 '집'이 등장하는가의 여부에서는 갈라진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작에는 구보씨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공간인 집이나 마을이 등장하지 않지만,[57] 「갈대의 사계」 연재분에서는 그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공간, 집과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며,

56) 최인훈, "GREY倶樂部 顚末記," 『자유문학』, 10월호 (1959), p. 154.

57) [4]는 예외이다. [4]의 초두에서 구보씨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 집을 나선다. 그 집 주인의 딸의 이름이 나오며 동네에 대한 간략한 묘사가 나온다. 단, [4]의 말미에서 구보씨의 귀가 장면은 없다. 이 점에서 [4]에서 징후나 맹아로 존재했던 가능성이 「갈대의 사계」에서 전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보씨는 집을 나섰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루를 여닫는다.

> 저녁에 구보씨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세수를 하고 구보씨는 신문을 본다. … 이 집에 지난봄에 하숙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다. 변두리에 새로 들어선 살림집 동네이지만 큰 「저택」들이 아니고 서민층에 알맞은 자그마한 지음새들이어서 거창하지 않고, 그중에서 이 집은 원래부터 여기 살던 집이라 신식 집이 아니고 한옥이다. 이 집을 두고 말하자면, 제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바뀌지 않고 둘레만 개명해진 셈이다. 그래도 터도 새집 서너 채는 더 지을 만한 넓은 빈자리가 있고, 거기에 감·복숭아·목련 따위 나무가 있다. 원래 시골집 마당에 자연스럽게 있던 야생 나무들이 일부러 가꾸는 관상목처럼 되었다. 주인집 식구는 셋인데 중년 부부와 옥순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다. 이 식구들도 마치 이 뜰의 나무들처럼 반농촌 반도회지 사람들이다. 닳아빠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벽창호도 아니다. 구보씨로서는 이만한 사람들이 가깝게 사귀기에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편이다. ([6]:429)

첫 연재분인 「갈대의 사계 1」([6])에서 광화문에서 돌아온 구보씨를 두고, 서술자는 그의 주변 환경을 세밀히 서술한다. 구보씨는 팽창하는 서울의 변두리 지역의 오래된 한옥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구보씨는 이곳 사람들과 "가깝게 사귀"면서 "안심"하게 되며, 나아가 서울 토박이들의 삶과 그들의 사회에 관심을 두고 관찰을 이어간다. 주목할 것은 구보씨가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의 이전 소설들과 달리, 지식인이 아니라 비지식인 주체로 각자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생활인, 혹은 '민중'이라는 사실이다.

「갈대의 사계 5」(『월간중앙』, 1971.12.;[10])에서 구보씨는 하숙집 주인인 옥순 어머니와 이발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중의 신앙 속에서 자라온 민중의 아들"([10]:454)인 그들의 "인삿말"([10]:453)을 비롯한 풍속과 "생활의 구석"([10]:454)을 유심히 관찰한다. 또한 「갈대의 사계 6」(『월간중앙』, 1972.1.; [11])에서는 배추 포기를 둘러싼 마을의 중년 여성들의

〈자료 2〉 마을 사람들을 관찰하는 구보씨
(김경우, 『월간중앙』 12월호(1971), p. 453.)

말싸움 속에서 '가락'을 발견하고, 옥순 및 옥순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한옥의 짜임새를 관찰하기도 하고, 일찍 집에 돌아온 날에는 "옥순이 가꾸어 놓은 화단 쪽"으로 가서 꽃의 빛깔을 관찰하거나, 뒤뜰 "나무 사이를 따라 걸"으면서 "차츰 짙어지는 보랏빛이 화단에 퍼지는 것을 지켜보"기도 한다([16]:435~436).

이처럼 구보씨는 지역이라는 공간과 민중의 생활에 밀착해 갔지만, 민중의 생활을 정형이나 고정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사회적 종"(社會的 種)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구보씨는 옥순 가족이 보여주는 삶의 형식을 관찰하면서, 자신과 그들이 전혀 다른 '사회적 종'임을 인식하는데, '사회적 종'은 인종적 특징이나 본질론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적 종'은 그 삶이 근거를 둔 공간과 풍속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었으며, 세대별로 다르게 이해되며, 또한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 옥순네 식구도 뚜렷한 「사회적 종」인데 구보씨는 그들이 자기와는 다른 「사회적 종」임을 믿는다. 원래 서울 근처의 농민이다가 서울이 불어나는 바람에 서울 사람이 저절로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들이 서울에 온 게 아니고 서울이 그들에게 와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농가 사람들이고 말도 구식이다. 옥순이만이 신여성인 셈인데 그녀도 집에 오면 어머니 비슷해진다.([11]:434)

구보가 파악한 옥순 가족의 '사회적 종'은 서울 근교의 농민이었다. 서울이 확장되면서 이들의 삶의 영역 또한 도시에 편입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성별 분업이나 집안의 살림살이는 농촌의 관습을 따르고 있었다. 옥순 어머니는 보다 강하게 농촌의 삶의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옥순은 '신여성'의 삶과 농민의 삶이 혼재된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또한 같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서울 근교의 농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젠더의 차이나 가족의 관습, 혹은 전쟁 인한 피난이나 취업으로 인한 이주의 경험에 따라 각기 다른 형식의 삶을 살아갔다.

나아가 구보씨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서울 사람들의 삶 또한 관찰한다. 이전까지 구보씨는 자신을 피난민으로 인식하며, 서울의 정주민과 자신의 삶에서 차이와 거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실제 서울에서 민중들의 삶을 관찰한 결과, 그들을 "순 토박이 서울 사람들"([11]:433)로 균질화할 수 없으며, 그들 또한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한다.[58] 또한 대체적으로 현재의 서울 사람들은 농민의 풍속을 따르고 있지만, 구보씨 자신의 경우처럼 피난이나 이주 등의 경험으로 "뿌리 없는 자의 버릇"을 가지게 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개화기 이래 진행되고 있는 사회 변혁", 곧 근대화의 흐름은

58) 구보씨는 "서울에 살면서 대부분 사람은 넓은 도시에서 숱한 사람과 함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허황된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실지로 관계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자기 직업을 중심한 몇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것뿐"([12]:419)이라고 평한다.

서울 사람들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었기에, 구보씨는 결국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피난민”([11]:434)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 이것이 가령 대구나 부산만 해도 서울보다야 낫겠지만, 광주나 마산만 하더라도 한 십 년 붙박여 살면 웬만한 사람은 알게 마련이다.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지역 사회란 것은 그만한 규모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모두 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음식집에서 숟가락을 같이 쓴다는 사실로 해서 얼굴을 모르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 동창생이 되어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숟가락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된다. 범죄라든지 무법자라든지 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소시민인 구보씨는 이와 같은 삶의 공동체에 귀속한다는 일을 높이 생각한다. 그래서 구보씨는 숟가락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12]:419)

구보는 서구에서 말하는 지역사회란 것이 서울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삶의 형식과 관계의 네트워크가 남아 있는 대구, 부산, 광주, 마산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마을이라든지 읍소재지만 한 곳이면, 거기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거미줄 같은 연락이 닿아 있다”라고 평하였다([17]:431). 하지만 전통적인 관계의 네트워크가 부재한 서울에서 공공권(公共圈, public sphere)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우스개소리처럼 제시되지만 ‘숟가락 공동체’에서 볼 수 있듯, ‘피난민’들이 일상과 생활을 공유하는 또 다른 공공권을 상상할 수 있다. 그것은 피난민인 구보씨가 서울 변두리의 농민인 옥순 가족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과 생활을 공유한 경험에 근거한 것이기도 했다. 특히 서술자는 구보씨가 위의 상상을 마친 순간, 옥순 어머니가 감기약을 건네는 장면을 제시한다. 그 약은 구보씨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옥순 어머니가 지어온 것이었으며, 직전에 자신이 약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되뇌이던 구보씨는 그 약을 삼키고 휴식을 취한다.

〈자료 3〉 구보씨에게 약을 건네는 옥순 어머니
(김경우, 『월간중앙』 2월호(1972), p. 419.)

이 점에서 피난민이었던 구보로 하여금, 피난민 콤플렉스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구체적인 타자의 삶/생명에 대한 배려 · 관심에 의해 형성 · 유지"되는 영역인 친밀권(親密圈, intimate sphere)이었다고 볼 수 있다.[59]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을 박탈당한 이들의 우정은 가능한 한 대립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언어로 이루어지며, 공적 영역에서만 가능한 빛과 조명의 대체물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 그 자체로 공공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60] 하지만 사이토 준이치는 친밀권에서 타자를 자

59)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역, 『민주적 공공성』 (서울: 이음, 2009), p. 106.
60) H. アレント, 阿部 斉訳, 『暗い時代の人々』 (東京: 河出書房新社, 1972), p. 43.

신의 코드에 회수하지 않는 관계, 타자성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사람[人]-사이[間]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새로운 정치적 잠재성은 타자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지 않는 친밀권의 의사소통 안에서 육성될 수 있다고 보았고, 친밀권을 감정의 공간인 동시에 담론의 공간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갖춘 영역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61]

친밀권의 경험은 소설가인 구보씨로 하여금, 타자를 자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타자로서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이해 위에서 구보씨는 그 자신의 의사소통 언어를 재고하게 된다. 그 계기는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잠결에 노랫소리로 착각한 동네 여성들의 싸움 소리로부터 왔다.

> 이러들 마오
> 이러들 마오
> 사람 괄시 그리 마오
>
> 사설과 푸념이 엿가락처럼 끊일 줄 모르는 창 소리가 무엇인가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이런 후렴만을 그중 똑똑히 가려들을 수 있었다.
>
> 구보씨는 인제 온전한 깨어 있는 정신으로 이 때 아닌, 곳 아닌 노랫마당의 연고를 가려듣기 위해서 온 조바심을 귀에 모았다. 수월치 않은 몇 분이 지난 끝에 구보씨는 빙그레 웃고, 다음에는 사뭇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낯빛을 지었다. (…) 옥순 어머니는 (배추를-인용자) 더 날랐다 하고, 동네 사람은 덜 날랐다고 하는 모양이다. 지금 창을 하는 게 그 동네 아주머니다. 그만 가져갔으니 그렇다는 것이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배추 몇 포기 가지고 속인단 말인가 하는 넋두리를 노래로 하고 있는 것이다. 싸움을 노래로 하다니, 그래서 구보씨는 놀랐던 것이다. 하기는 이런 비슷한 일은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었다. 구보씨 어머니, 그들 시어머니 세대의 사람들은 가부간에 말속에 가락이 섞이는 일이 많다. 이야기가 어느새 한숨이 되고 어느새 사설이 되고, 말꼬리가 판소리 한 대목같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투는 그들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없는 버릇이다. ([11]:430)

---

61)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pp. 110~111.

구보씨가 간곡한 노랫소리로 기분 좋게 들었던 것은, 사실 동네 여성들이 배추를 사고팔다가 그 수량을 두고 싸움을 하는 소리였다. 동네의 중년 여성들은 이해와 오해, 배려와 짜증이 섞여 있는 싸움을 하면서, 노래이고 말이면서 동시에 욕설인 방식을 통해 의사소통을 수행하였다. 자신과 같은 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중년 여성의 의사소통 방식에 구보씨는 충격을 받는다.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던 민중의 낯선 한국어의 화용을 만난 구보씨는 소설의 언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그는 "「말이 노래가 되게 할 것. 후퇴함으로써가 아니라 전진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 그렇게 해서 글에 점잖음을 줄 것.」"([11]:430)이라고 메모하였다.

이후 최인훈이 중년 여성의 가락이 있는 언어로 소설을 쓴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소설 언어에도 변화가 발견된다. 7·4남북공동성명 직후인 1973년 최인훈은 한동안 절판되었던 자신의 출세작 『광장』을 민음사에서 재간행하는데,[62] 이때 자신의 문장을 다시 쓴다. 일본어 독서를 통해서 세계 이해를 형성하였던 최인훈은 소설에서도 서구의 개념을 번역한 일본식 한자개념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1973년 『광장』에서는 기존의 문장 형태를 유지하면서, 한자개념어와 용언을 고유어로 수정한다.[63]

중년 여성의 가락이 있는 말을 들은 것이 이러한 변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울 변두리 민중들과 생활을 공유한 구보씨의 경험은, 지식인 사회 및 언어 속에 머물러 있던 최인훈이 민중의 공공권과 언어

---

62) 김학동은 『광장』이 분단현실과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지식인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고 평하였다. 또한 남북공동성명 직후인 1973년 "『광장』이 민음사에서 재출간되어 나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만은 아니다. 이 책이 새삼스럽게 다시 출간된 것은 7·4공동성명으로 촉발된 민족 통일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학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6), pp. 239~240.

63) 장문석, "'우리 말'로 '사상(思想)'하기?! - 후기식민지 한국과 『광장』의 다시 쓰기," pp. 398~400.

로 옮겨가는 한 계기를 설명할 수는 있다. 또한 최인훈의 『광장』이 남과 북 사이의 선택을 거부한 중립국 포로의 이야기임을 감안한다면, 이 소설의 재간은 앞서 김순남과의 대화에서 구보씨가 말했듯, 통일의 문제를 "밝은 햇빛 아래 내놓아서 서로 토론하고 외치고 권유"하는 계기로서 기능할 여지도 남긴다.[64]

구보씨에게 남북적십자회담을 기다리는 1년은, 이처럼 서울 주변의 민중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그 생활을 공유했던 기간이었다. 최인훈은 한국전쟁 중 월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 체류한 생애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냉전 아시아를 횡단했던 월남인 최인훈의 이동에 주목하여, "농민처럼 땅만 파는 정주민의 부동하는 감각이 아니라, 별을 보고 길을 찾는 유목민스러운 감각"[65]을 최인훈 문학의 주요한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최인훈 문학의 전체적 특징을 파악한다면 월경의 상상력 혹은 난민의 사상에 주목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1970년 전후 그는 자신과 유사한 인물 구보씨를 전면화하여, 서울의 주변부라는 지역에서 민중과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다만 그의 시도는 월남인의 문화적 지향 제2유형과 같이, 남한이라는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66] 구보씨의

---

64) 1940년대 생으로 1960년대에 대학을 다닌 소설가 송하춘은 『광장』을 두고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떳떳하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모이면 함께 토론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말하자면 그런 소설이었다."라고 증언하면서, 『광장』의 독서와 토론의 경험에 대해 증언하였다. 송하춘,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쓴 소설 – 최인훈의 『광장』," 『새국어생활』, 18(3) (2008), pp. 169~171.

65) 김윤식, "최인훈론 – 유죄 판결과 결백 증명의 내력," 『작가와의 대화』 (서울: 문학동네, 1996), p. 14.

66) 월남인의 문화적 지향 제2유형은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pp. 177~186 참조. 제2유형은 월남 이후 한국체제에 살아가는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며, 자신의 세계관 및 체제 평가 또한

지향은 일상의 공유와 친밀권에 근거하여 생활의 공간인 지역을 단위로 대안적 공공권을 형성하는 것에 있었다.[67] 그의 지향은 민중의 삶에 근거하여 기존의 자연화한 국가나 민주주의라는 이념형을 탈구축하는 것이었다.

구보씨는 자신의 일기에 "「地方自治」에 대해 말하는 걸 들으면 슬그머니 우스워진다. 「민주주의 학교」니 「민주주의 根幹」이니 한다. 지방 자치가 '학교'라면 우리는 학력이 없는 고학생으로 민주주의 생활에 곧바로 들어왔다는 말인가.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운용 원리가 지방자치다."([11]:432)라고 기록하였다.

1960년대 초반 『광장』의 지식인 이명준은 민주주의는 서구에 있으며 한국에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군사독재를 경험했던 1960년대 중반 최인훈은 민주주의와 혁명을 몽유하는 지식인 산책자의 야간 산책을 통해 유령을 통해 민주주의를 현재화하였다.[68] 하지만 1970년대 초반 최인훈은 지역과 민중의 삶을 근거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실천을 재구성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통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쓴다.

> 나라가 절반으로 갈라져서 불편하다는 말은 밤낮 듣는다. 사실이다, 「통일」이란 말은 하도 들어서 인제는 그 말이 가진 싱싱한 맛이 거의 없어졌다. 사실 보통 사람에게 나라가 갈라져 있어서 불편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

한국 체제에 걸맞게 조정하고자 한다. 이 유형은 남한의 현실의 부정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그 세계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

67) 문학사적으로 본다면, 1970년 전후 최인훈의 상상 앞자리에는 젠더와 문식성이라는 조건을 숙고하며 민중의 친밀성에 기반한 공공권의 형성 가능성을 탐색했던 해방공간 엄흥섭의 문학적 실천을 놓아볼 수 있다. 김윤진, "해방기 엄흥섭의 언어의식과 공동체의 구상," 『민족문학사연구』, 60 (2016), pp. 432~442.

68) 서호철, "루멀랜드의 신기료장수 누니옥(NOOHNIIOHC)씨 – 최인훈과 식민지 / 근대의 극복," pp. 30~33; 유예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와 죄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p. 75~96.

떤 뜻을 갖는 일일까, 통일이 가져오는 변화는 결국 생활의 가까운 곳에서 무슨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이 나타날지도 두고 보아야 한다. 이번처럼 남북의 적십자회담이라도 열리고 보면 문득, 통일은 또다시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제 양쪽 사람들은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통일이 다음에 무엇이 지금보다 달라질 것인지 짐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0]:449)

앞서 보았듯 구보씨 역시 '통일'이 데탕트라는 전지구적 냉전질서의 변동, 남북적십자회담의 더딘 진전에 의해서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통일'을 생활의 영역으로 하방(下放)하고 있다. 그는 '통일'이 밀사들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공공권에서의 토론과 소통 위에서 생활 속에서 감각되고 상상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물론 최인훈의 이해가 평면적이며 당위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평화체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은 일회적 합의나 조치로 달성될 수 없으며 해결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69] 1970년대 초반 피난민 구보씨의 통찰은 민중의 일상에 근거하여 통일을 상상했다는 점에서 음미할 가치가 있다. 1960년대 지식인을 주체로 한 중립화론에 관심을 기울였던 최인훈은, 1970년대 초반 민중의 일상과 공공의 토론에 근거한 통일론으로 그 관심을 이동하였다. 이를 두고 "광장으로 나오는 공공의 통일론"[70]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

69)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 개념, 쟁점, 추진방향," 『통일문제연구』, 53 (2010), p. 134.

70) "광장으로 나오는 공공의 냉전 역사"라는 권헌익의 표현을 손질한 것이다. 권헌익, "냉전의 다양한 모습," 『역사비평』, 105 (2013), p. 234. 또한 이찬수는 종교의 영역을 예로 들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정치의 영역에 종속되거나 일방적인 관계에 한정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는 "이론적 차원에서도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이찬수, "한국 종교의 평화 인식과 통일 운동 -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p. 288), 이것은 비단 종교의 영역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영역 모두에도 적용할 수 있는

V. 평화를 위한 문화적 전통의 형성 - 월북작가의 해금과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구보씨는 스스로를 "월남 피난민이자 홀아비 소설노동자"([12]:418)로 정의한다. 선행연구에서 주목했던 것처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형상화하는 구보씨의 일상 중 상당 부분은 동료 시인이나 소설가들과 만나거나, 잡지사 등에 들러서 원고를 제출하고 원고료를 정산하는 데 할애된다. 가령 그는 「갈대의 사계 11」(『월간중앙』, 1972.6.; [16])에서 광화문 앞 전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찾아서 그곳의 기관지를 편집하는 이문장을 만난다. 구보씨는 그를 두고 "매우 솜씨 있는 소설노동자"라고 칭하는데, 이문장은 구보씨에게 최근 유명을 달리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관한 짧은 글을 청탁한다. 실제로 이 에피소드는 한국문인협회와 그곳의 기관지 『월간 문학』, 그리고 편집장 이문구를 소재로 한 것이다.[71] 최인훈이 쓴 글은 나머지 24명의 문인들의 글과 함께 『월간 문학』 1972년 6월호에 공동 표제 「川端康成은 왜 自殺했나?」 아래 게재된다.[72] 남북적십자회담 소식이 나날이 전해지던 1970년대 초반의 한국 사회의 분

의견이다.

71) 이문구의 『월간 문학』 편집의 경위와 특징에 관해서는 야나가와 요스케, "창작과 편집 -이문구의 편집자 시절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9 (2017), pp. 311~326. 1970년 전후 이문구는 식민지의 시간, 4·19혁명의 시간, 1965년 한일협정의 시간 등 세 가지 시간을 중첩하면서, 한국에서 혁명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심문하고, 시민과 '민주주의적인 인간상'이라는 이념형을 탈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소영, "김원일·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고아의 형상화 연구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p. 87~115.

72) 참가한 문인은 다음과 같다. 朴花城, 黃順元, 安壽吉, 朴在森, 宋相玉, 張壽哲, 洪允淑, 任重彬, 金耀燮, 朴敬洙, 孫素熙, 崔仁勳, 劉庚煥, 申東漢, 李仁石, 康信哉, 宋炳洙, 李秋林, 任軒永, 尹柄魯, 金宇鍾, 李根培, 徐基源, 李造哲, 李炯基

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소설가인 구보씨가 월북작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은 주목해볼 만하다.

「월북 작가들 작품 말이야.」(김공론의 발언 - 인용자)
「응.」(구보씨의 발언 - 인용자)
「이번 기회에 어떻게 안 될까?」
「해방 전 작품 말이겠지?」
「물론이지, 해방 전에야 같은 문단에서 살면서 쓴 작품이구, 지금 읽어봐도 특별히 이데올로기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 작품을 묶어놓을 필요가 뭔가?」
「그야.」
구보씨는 육포를 한 조각 찢어 먹으면서 대답했다.
「그야. 늘 하는 소린데. 글쎄 어떨까?」
「그래서 출판사에 한번 노력이나 해보라고 권했지.」
「출판사에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관계 당국에 문의를 한다든가 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좋은 생각이군, 아무튼 밑져야 본전이니 해봄직은 하지.」
글 쓰는 사람들이 모이면 가끔 나오는 얘기였다. 그러나 구보씨는 일이 수월하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다.
「하긴, 별것 아닌데.」
「응?」
「글세, 그 작품들 말이야, 지금 여기서 읽는대야 크게 어긋날 것도 없는 작품들인데 말이야.」
「작품 때문이 아니라 물론 쓴 사람 때문이지.」
「그러니 복잡하지.」
「이번 남북 적십자 회담 같은 데 비하면야 복잡할 것 뭐 있나?」
「그렇군」
「될 만한 일부터 골라서 약간씩이라도 숨통을 여는 게 옳지.」
「혹시 적십자 회담 같은 데 성과가 좋으면 다른 문제들도 실마리가 풀릴지 모르지.」
「글세.」
이번에는 김공론 씨가 입을 다물었다. ([12]:431~432)

「갈대의 사계 7」(『월간중앙』, 1972.2.; [12])에서 등장하는 평론가 김공론과 소설가 구보씨의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기획하고 있는 문학전집 편집에 대한 토론이 등장한다. 평론가 김공론은 최인훈과 마찬가지로 1936년생인 평론가 김윤식을 가리키는데,[73] 두 사람의 소설 속 대화는 1971년 12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달 전인 1971년 10월을 배경으로 하는 「갈대의 사계 5」([10])에서 김공론은 문학전집의 편집을 구보씨에게 제안한 상황이었고, 그들은 새로운 문학전집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에 김공론이 제안한 전집의 편집 방향은 사실주의 소설과 대중소설을 함께 편집하는 것이었으나, 2개월 후에 김공론은 월북작가의 작품을 함께 편집하는 문제를 의논한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월북작가'로 간략히 표현되지만, 이들은 단지 사회주의에 동의했던 문학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방 후 8년간 월북한 문학자들이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활발히 문학적 실천을 수행하였으며, 파시즘과 조선어 폐지에 저항하며 "조선어, 예술성, 합리성"을 옹호하며 굴절된 형태로나마 '공동전선'을 형성하였던 좌우를 망라한 문학자들은, 해방공간 '조선문학가동맹'으로 다시 모였다.[74] 좌우를 망라했던 이들 문학자들은 해방된 조선을 위한 새로운 문학과 언어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과 실천을 수행하였으며, 교과서를 편집하여 조선어 및 문화 교육을 담당하였다.

---

73) 1970년대 초반 김윤식, 최인훈, 고은은 자주 어울렸다. 김윤식의 회고에 따르면, "그 무렵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쓰던 최인훈과 시인 고은이 찾아오면 캐비닛 속에 든 소주를 마셨고 시인 고은, 최인훈과 셋이 배밭 순례를 하고 육군사관학교 앞 청요리집 이층에서 벌겋게 취하여 가을 들판에 타오르는 모닥불을 지켜보면서 말을 함께 잃었던 기억도 있다." 동년배인 이들은 문학지를 함께 내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김윤식, 『내가 살아온 20세기 문학과 사상 – 갈 수 있고, 가야 할 길, 가버린 길』 (서울: 문학사상, 2005), pp. 14~19.

74) 홍종욱, "해방을 전후한 주체 형성의 기도 – 좌파 지식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윤해동 외편,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서울: 역사비평사, 2006), pp. 257~261.

하지만 해방 후 8년은 “가슴 떨리는 미래의 첫 페이지가 아니라 어두운 과거의 끝자락”에 가까웠으며, 해방공간의 남한은 식민지 조선의 모순이 이월되거나 심지어는 더 악화된 시공간이었다. 결국 적지 않은 문학자들이 남한을 떠났으며, “남한 문단의 건설은 영광을 기리기보다는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75] 한국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월북 작가의 작품집 발간이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문학사에서도 삭제되었다.

최인훈은 1936년 생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국민학교에서 일본어 교과서로 공부를 시작했으며, 해방 후에는 임화, 조명희 등의 작품이 실린 교과서로 조선어와 문학을 공부하였다. 월남 이후 이들의 작품을 공공영역에서 접할 수는 없었지만, 헌책방을 통해 간헐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김공론과 구보씨 두 사람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경과를 염두에 두면서, 이 기회에 월북작가의 작품을 전집에 실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물론 구보씨는 보다 비관적이었으며, 김공론은 “될 만한 일부터 골라서 약간씩이라도 숨통을 여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는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월북작가의 작품에 대한 해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월북작가의 작품 발간은 “문학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10]:459)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한국문학전집’에 월북작가의 작품과 남한작가들과 함께 수록하는 것은, 분단과 함께 단절된 한국문학사를 복원하며 문학의 영역에서 ‘통일’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다.[76]

---

75) 손유경, 『슬픈 사회주의자』 (서울: 소명출판, 2016), pp. 10~15.

76) 1973~1974년 일본인들로 구성된 한국근대문학 연구모임인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学の会)’에서는 한국근대소설을 번역하여 두 권 분량의 『現代朝鮮文学選』(東京: 創土社, 1973~1974)를 간행한다. 이 중 2권은 해방공간의 작품을 수록하였는데, 그 수록작가는 이태준, 박태원, 김학철, 안회남, 이근영, 박영준, 김동리, 황순원, 김성한, 박연희, 윤세중, 채만식, 이기영, 김남천 등 남과 북의 작가를 망라하였다. ‘조선문학의 회’를 창립하였던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는 2권의

최인훈은 구보씨의 발언을 통해서 월북작가의 작품 출판을 통한 '해금'을 조심스럽게 논의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 그의 글쓰기를 통해서 월북작가의 문학적 성과를 자기화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작가가 박태원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또한 1930년대 박태원의 동명 소설에서 제목을 따온 것이다. 후일 최인훈은 탈냉전기에 발표한『화두』에서 "그의(박태원의-인용자) 모든 단편들이 마음에 들었고, 그의『천변풍경』이 좋았다. 특히「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대뜸 그 안에 나를 들여앉히고 싶은 그릇으로 좋았다."라고 회고하기도 하였다.[77] 이 언급에 나오는 두 편의 소설「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천변풍경』은 모두 최인훈의『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서술기법과 연락되어 있다.

박태원의 동명소설과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거듭 지적하였듯, 주동인물의 이름이 '구보씨'라는 것, 주동인물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이동하고 여러 문화인들을 만나며, 그 경로를 따라 서사가 전개된다는 것 등의 공통점이 있다. 최근의 연구가 지적하듯 최인훈은 구보를 자신을 비춰볼 '문학사적 거울'로 이해하였으며, 특히 작가가 작품 속에 등장한다는 서사 기법에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 또한 무척 높다.[78] 특히 처음부터「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표제로 연재된 [1], [2], [4]는 박태원의 동명소설과의 깊은 연락관계를 가진다.

이에 비해「갈대의 사계」로 연재된 소설들은 박태원의『천변풍경』과 연락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박태원의『천변풍경』은 청계천변에서 살고 있는 '민중'이라는 주체에 주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빨래터나 이

발간을 두고 "무의식적으로 해방공간에서 '통일'을 모색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学の会)'," 『한국학연구』, 40 (2016), pp. 195~196.

77) 최인훈,『화두』2 (서울: 민음사, 1994), p. 47.

78) 정영훈, "1970년대 구보 잇기의 문학사적 맥락,"『구보학보』, 9 (2013), pp. 300~306.

발소를 비롯하여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갈등과 화해를 포착하고 있다.[79] 또한 대도시와 군중의 익명성에 의탁하여 서울의 공적 공간과 식민지 근대성을 시각적으로 관찰했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달리, 『천변풍경』에서 박태원은 친밀성을 바탕으로 서울의 '내밀한 뒷길'을 따라 사람들의 인정의 이야기를 풍요로운 감각으로 포착하고 서사화하였다.[80]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골목, 집, 이발소 친밀성의 생활공간을 서사화하고, 갈등과 화해를 포함한 민중의 일상과 감정의 교류를 포착하여, 그것을 시각 뿐 아니라 청각을 비롯하여 풍요로운 감각으로 재현하는 서사의 기법은 최인훈이 박태원의 『천변풍경』을 문학적 자원으로 삼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각과 고현학에 근거한 지식인(「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부터 민중이라는 타자와의 만남과 일상의 공유(『천변풍경』)로 나아간 박태원의 문학적 행보는,[81] 1960년대 지식인에 주목하였던 최인훈이 1970년대 초반 민중을 발견하는 과정과 구조적으로 상동성을 가지기도 한다. 최인훈은 월북작가의 '해금'을 모색할 뿐 아니라, 다른 한 편으로는 그 자신이 월북작가의 작품을 자신의 소설 안에 현재화하였다.[82] 이러한 최인훈의 문학

79) 임미주, "『천변풍경』의 정치성 연구," 『구보학보』, 10 (2014), pp. 234~242.

80) 송민호, "도시공간에 대한 미디어적 인식과 소설의 서사 – 박태원의 소설과 공간으로서의 서울," 『구보학보』, 11 (2014), pp. 161~165.

81) 아이카와 타쿠야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다양한 계층과 젠더로 구성된 경성 사람들의 세계를 지식인인 구보가 관찰하는 소설로 이해하며, 각각이 소설 언어의 표기에서 한글과 한자로 재현됨을 지적하였다. 소설 말미의 "創作하겟소—"라는 구보의 다짐은, 도쿄에서 입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경성 사람들의 생활을 재현할 수 있는 직업적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나'와 지식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경성에 존재하는 타자의 세계와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카와 타쿠야, "경성 소설가의 글쓰기 – 박태원의 초기 소설가 소설," pp. 422~431.

82) 비슷한 시기인 1970년 7월 최인훈은 조명희의 「낙동강」을 자원으로 삼아, 「두만강」을 『월간중앙』에 발표하였다. 북한의 회령을 배경으로 한 「두만강」은 최

적 실천은 최근 연구의 지적처럼 “문학자”[83]로서 단절된 문학사를 복원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 편, 최인훈은 월북작가를 복원하여 하나의 문화사적 전통으로 형성하여, 그것을 인근 분야의 예술가들과의 연대와 소통을 위한 자원으로 삼고자 하였다. 김공론과 구보씨의 대화에서 주목할 것은 두 사람이 ‘문학자’를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 본다는 사실이다.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사회를 단지 여러 개인의 총합으로 이해하면서, 각 개인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박한 개인주의자로 보았으나, 뒤르켐은 근대사회에서 개인은 자율적으로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이 사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고대 사회는 기계적 연대의 사회이며 여기에서 각 개인은 동질적인 것으로 규정되지만, 현대 사회는 유기적 연대의 사회로서 여기에는 차이화하고 전문화한 개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84] 이때 상이함을 전제로 한 각 개인은 고유한 활동범위를 가지는데, 다양한 전문적 기능으로 분업화된 사회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에 의해 ‘분업에 의한 연대’가 가능해진다.[85]

김학재는 뒤르켐의 『사회분업론』을 ‘평화’라는 시각에서 독해하면서, “지속적인 만남과 자유로운 교류가 이어지고 분업 관계와 사회적 연대가

인훈이 최초로 쓴 습작인데, 이때까지 발표되지 못하다가 데탕트 국면에서 발표되었다. 아울러 최인훈의 이태준, 조명희 읽기에 관해서는 손유경, “혁명과 문장,” 『민족문학사연구』, 61 (2017) 참조. 앞서 보았듯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는 몽타주 기법이 활용되는데, 1930년대 김남천은 몽타주 기법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현하고자 하였다. 장성규, “김남천 소설의 서술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pp. 54~57; 이소영, “1930년대 후반 김남천 소설의 이체(異體) - 「장날」과 「이리」에 나타난 몽타주(montage)와 구상력(構想力)을 중심으로,” pp. 285~310.

83) 정영훈, “1970년대 구보 잇기의 문학사적 맥락,” p. 299.

84) 吉本惣一, 『蘇る「社会分業論」』 (東京: 創風社, 2016), p. 61.

85) E. デュルケム, 井伊玄太郎訳, 『社会分業論(上)』 (東京: 講談社, 1989), pp. 218~219.

형성되며, 사회적 정의의 원칙으로 평화의 기반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라는 기획으로 제안하였다.[86] 이러한 시각의 도움을 받는다면, 김공론과 구보씨가 구상하는 월북작가를 문학전집에 포함하는 문제는, 문학자라는 분화된 영역에서 "약간씩이라도 숨통을 여는 일"이 되며, 다른 분업화된 다른 사회 영역과의 연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실천을 위한 자원이 된다.

역사적으로 조선문학가동맹은 해방공간에서 미술가, 음악가, 영화가 등 다른 문화 영역의 예술가들과 공동의 문화적 실천을 수행하였다.[87] 구보씨가 샤갈의 전시회와 이중섭의 전시회에 가서 예술에 대해 사색하고, 음악과 미술, 문학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문학사를 복원하는 것은 문학의 영역을 넘어서, 인접 영역인 음악, 미술, 영화 등과 상호 참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실천이기도 하였다.

> 사람은 양인이고 동인이고 모두 야누스의 핏줄이다. 다만 이 지구의 어느 한 고장에 붙박여 살면서 그 두 얼굴의 어느 한쪽이 녹이 슬고 덩굴에 덮여 버리게 된다. 그 풍토의 형편으로서는 그 그쪽을 볼 필요가 없거나 보아서서는 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바람 센 지방의 소나무가 한쪽으로 휘듯이. 그렇게 돼서 생긴 감수성의 버릇이 더욱 닦이고 굳어버리면 전통이 된다. 그러나 이 전통은 결코 다시 분해할 수 없는 실체는 아니다. … 야누스가 이형(異形)의 괴물인 게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이 반신불수일 뿐이요, 안면 마비증이다. 그들은 외눈을 자랑하는 슬픈 동물이다. 인간이 다시 야누스가 되는 때, 자기 자신인 그 신화인(神話人)이 될 때 인간의 마음은 참다운 기쁨과 평화를 찾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활의 태양이 빨리 문명의 궤도를 찾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86) 김학재, 『판문점체제의 기원』 (서울: 후마니타스, 2015), pp. 560~563. 뒤르켐에 근거한 '분업에 의한 연대'와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라는 개념은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87) 장문석, "밤의 침묵과 자유의 타수 – 김수영의 해방공간과 임화의 4.19," 『반교어문연구』, 44 (2016), pp. 331~336, 341~347.

—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다. 구보씨는 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안이 벙벙했다. ([9]:452~453)

구보씨가 감동했던 샤갈과 이중섭의 예술은 평화와 사랑을 노래한 것이었다.[88] 평화를 형상화한 그들의 작품을 보고난 후, 구보씨가 느낀 것은 지금 한국 사람들은 단지 풍토에 따라 형성된 전통을 불변의 것으로 여기며, 그 전통에 얽매여 한 쪽의 시각으로만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굳어진 전통에 여러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적대와 배제의 문화"로서만 존재하는 남북의 분단문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89] 그렇기 때문에 구보씨는 '참다운 기쁨과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인식은 구보씨만은 것이 아니었는데, 일찍이 4·19 직후 시인 김수영 또한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던 사회적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좀 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도 통일이 되어야겠소."라고 주장하였고, 한국에서 시 쓰기라는 문화적 실천이 온전히 전위적인 의미로 기능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북 작가들의 작품이 한국에서 출판되고 연구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90]

김수영, 김공론, 구보씨 등이 판단하듯, 월북작가의 작품 출판을 금지

88) 김우창, "南北朝時代의 예술가의 肖像(해설)," p. 348. 아울러 샤갈과 이중섭 모두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이었다. 샤갈은 예술 수업을 위해, 그리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평생 돌아가지 못했으며(ポーラ美術館学芸部 編,『ピカソとシャガール -愛と平和の讃歌』(箱根町: ポーラ美術館, 2017), pp. 38, 92~93), 이중섭은 최인훈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중 "월남"([15]:409)하였다.

89) 김병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구축의 과제,"『평화학연구』, 15(1) (2014), p. 20.

90) 김수영, "저 하늘 열릴 때 - 김병욱 형에게(1960.),"『김수영 전집』2 (서울: 민음사, 2003), pp. 162~163; 김수영, "시의 '뉴 프런티어'(1961.3.)," 위의 책, p. 241. '통일'과 '시의 전위적 재구성'을 등가로 이해한 김수영의 논리에 관해서는 장문석, "밤의 침묵과 자유의 타수 – 김수영의 해방공간과 임화의 4.19," pp. 351~353.

하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현재의 글쓰기를 위한 전통과 자원의 활용을 막고, 문학을 비롯한 인접 영역의 새로운 창조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었다. 또한 그는 새롭게 형성된 전통이 그 자체로 고정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구보씨는 이중섭의 전시회를 보고 난 후에도, "현재의 계통과 전통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는 것을 비판하며, "인간정신의 다양화를 위해" "복수의 전통을 허용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5]:411). 복원된 전통은 '복수의 전통'의 하나로 정위되어,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를 위한 자원이 된다.

이 점에서 월북작가를 해금하는 것은 삭제되고 끊어진 문학사를 잇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전통'[91]을 복원하여, 다른 예술양식과의 소통과 공통의 자원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그러한 예술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은 독자들과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할 수 있었다. 구보씨가 언급한 "참다운 기쁨과 평화"는 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연대로서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91) 임화는 단속적(斷續的)인 시간 속에서 비연속적으로 연속하는 '의미와 가치'를 두고 '전통'이라고 명명하였다. 임화, "고전의 세계 - 혹은 고전주의적인 심정," (『조광』, 1940.12.) 하정일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5 – 비평2』 (서울: 소명출판, 2009), pp. 285~289.

Ⅵ. 결 - 냉전의 경험과 통일의 상상

이 글은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0~1972)을 데탕트 국면에서 변화해 가는 남북관계와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월남인'의 대응과 문화적 상상으로 독해하였다. 1970년을 전후한 데탕트로 인해 남북관계의 긴장은 완화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 월남한 소설가 최인훈은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는 사회적 분위기 아래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창작하였다. 1960년대 최인훈은 중립과 제3세계를 주제로 한 소설을 통해 냉전체제 너머의 아시아를 상상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정치적인 주제와 지식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쓰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냉전 너머를 향한 최인훈의 상상이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처음에는 느슨한 단편소설의 연작으로 계획되었지만, 최인훈이 월간지에 연재할 기회를 얻게 된 이후, 데탕트 아래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월차보고서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월남을 했던 주동인물 구보씨는 뉴스와 신문을 통해 냉전체제의 변동과 남북의 접촉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소설가 구보씨의 1년은 뉴스를 통해 기대와 실망, 놀람과 지루함을 거듭 경험하는 나날이었다. 그 결과 구보씨는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데, 통일은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공공영역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를 탐색하면서, 민중의 일상에 대한 존중과 친밀권에 근거한 지역에서의 대안적 공공권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보씨의 결론을 "광장으로 나오는 공공의 통일론"으로 명명할 수 있다. 또한 문학이라는 사회적 영역의 전문가인 구보

는, 분단 이후 금지된 월북작가의 작품을 간행하고자 하였다. 그의 시도는 나누어진 문학사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예술의 다양한 영역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전통'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민중의 생활감각과 대안적 공공성에 근거하여 통일을 이해하고, 사회적 연대로서 평화를 상상한 소설로 독해할 수 있다.

최인훈이 「갈대의 사계」의 연재를 종료한 것은 1972년 7 · 4남북공동성명 직전이었다. 그 후 7 · 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으나, 곧 남한에는 유신체제가 선포된다. 이후 최인훈은 『광장』을 개작하는 동시에 그 서술자의 언어를 바꾸어 재간하며, 미국 체류를 경험한다. 그 즈음 그는 소설 창작을 멈추고, 희곡 창작으로 나아간다. 결국 구보씨가 김공론과 함께 시도하였던 월북작가의 '해금'이 이루어진 것은 1989년의 일이었고, 이어서 냉전체제는 종식하였다. 탈냉전기인 1991년 9월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그 해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최인훈이 조명희의 흔적을 찾아, 구 소련 중앙아시아 국가를 방문하였던 것은 그 즈음이었다. 2000년 6 · 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지만, 최인훈이 상상하였던 '민중'의 생활감각에 기반한 공공성의 형성이나 '광장으로 나온 공공의 통일론'은 여전히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지 못하였다.

1977년 일본의 역사학자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민중의 구체적인 삶에 주목하여 한국의 역사를 서술하였는데, 그는 통사의 마지막 장을 당대에 이미 형해화한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전망으로 갈무리하였다. 가지무라는 한국의 민중이 진창투성이가 되어서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목숨을 건 도약을 통해 지혜를 되살려 온 역사를 상기하면서, 한국 민중의 예지가 이미 남과 북 모두에서 표면적으로는 무의미해진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소생시킬 것을 기대하였다.[92]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기대

92) 梶村秀樹, 『朝鮮史 - その発展』(東京: 講談社, 1977), pp. 216~217.

는 그가 불패와 무류(無謬)의 민중을 상상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가지무라는 정당한 것, 깨끗한 것이 이기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한 위에서, "'만신창이'인 현실의 민중 가운데서 '이념형(理念型)'으로서의 민중을 발견"했으며 '이념=실체'로서의 민중을 신뢰하였다.[93] 지금 1970년대 초반에 발표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다시 읽으며, 최인훈의 문화적 상상을 다시 검토하는 것 역시 진창의 역사와 '만신창이'인 민중의 구체적 경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건져 올려 그것을 현재화하기 위함일 것이다.

■ 접수: 2017년 5월 1일 / 심사: 2017년 5월 4일 / 게재확정: 2017년 6월 1일

93) 홍종욱,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한국 자본주의론 – 내재적 발전론으로서의 '종속 발전'론," 『아세아연구』, 55(3) (2012), p. 32; 홍종욱, "일본 지식인의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의 발견 - 다케우치 요시미와 가지무라 히데키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125 (2017), pp. 116~123.

【참고문헌】

공임순. “1960년과 김구 – 추모 · 진상규명 · 통일론의 다이어그램.”『한국학연구』, 35 (2014).

구재진. “최인훈의 고현학. ‘소설노동자’의 위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한국현대문학연구』, 38 (2012).

권보드래. “최인훈의『회색인』 연구.”『민족문학사연구』, 10 (1997).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상허학보』, 34 (2012).

권보드래 · 천정환.『1960년을 묻다』. 서울: 천년의상상, 2012.

권 은. “피난민 산책자와 1970년 서울 – 최인훈의『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론.”『시학과 언어학』, 30 (2015).

권헌익, “냉전의 다양한 모습,”『역사비평』, 105 (2013).

권헌익. 이한중 역.『또 하나의 냉전』. 서울: 민음사, 2013.

김건우.『대한민국의 설계자들 –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서울: 느티나무책방, 2017.

김병로. “분단체제와 분단효과 – 남북관계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향 분석.”『통일문제연구』. 59, (2013).

김병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구축의 과제.”『평화학연구』, 15(1) (2014).

김연철. “7 · 4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역사비평』, 봄 (2012).

김우창. “南北朝時代의 예술가의 肖像(해설).” 최인훈.『최인훈 전집 4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 문학과지성사, 1976.

김윤식. “최인훈론 – 유죄 판결과 결백 증명의 내력.”『작가와의 대화』. 서울: 문학동네, 1996.

김윤식.『내가 살아온 20세기 문학과 사상 – 갈 수 있고, 가야 할 길, 가버린 길』. 서울: 문학사상, 2005.

김윤진. “해방기 엄흥섭의 언어의식과 공동체의 구상.”『민족문학사연구』, 60 (2016).

김인호. “신 없는 시대의 서사적 몸부림 – 최인훈『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동악어문논집』, 33 (1998).

김지형. “7 · 4공동성명 전후의 남북대화.”『사림』, 30 (2008).
김진규.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자기소외의 극복 모색 - 행동과 주체 정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김학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6.
김학재.『판문점 체제의 기원』. 서울: 후마니타스, 2015.
박광득. “7 · 4남북공동성명(1972)의 주요내용과 쟁점분석.”『통일전략』, 14(3) (2014).
박정진. “냉전시대 한반도 갈등 관리의 첫 실험. 7 · 4남북공동성명.”『북한연구학회보』, 16(1) (2012).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 – 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통일과 평화』, 7(2) (2015).
복도훈. “범속한 세계에서의 교양의 (불)가능성에 대한 서사적 모험 – 교양소설로서의『광장』에 대하여.”『비교문학』, 61 (2013).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 외역.『민주적 공공성』. 서울: 이름, 2009.
서세림. “월남 작가 소설 연구 -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서은주. “최인훈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서은주. “한국전쟁의 기억과 글쓰기 – 거제도 포로수용소 체험을 중심으로.”『작문연구』, 12 (2011).
서호철. “루멀랜드의 신기료장수 누니옥 (NOOHNIIOHC)씨 – 최인훈과 식민지 / 근대의 극복.”『실천문학』, 여름 (2012).
손유경.『슬픈 사회주의자』. 서울: 소명출판, 2016.
손유경. “혁명과 문장.”『민족문학사연구』, 61 (2017).
송민호. “도시공간에 대한 미디어적 인식과 소설의 서사 – 박태원의 소설과 공간으로서의 서울.”『구보학보』, 11 (2014).
송하춘.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쓴 소설 – 최인훈의『광장』.”『새국어생활』, 18(3) (2008).
심연수. “‘7 · 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배경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국민윤리연구』, 52 (2003).
아이카와 타쿠야. “경성 소설가의 글쓰기 – 박태원의 초기 소설가 소설.”『반교어문연구』, 41 (2015).
안경환.『황용주 – 그와 박정희의 시대』. 서울: 까치, 2013.

야나가와 요스케. “창작과 편집 – 이문구의 편집자 시절을 중심으로.”『상허학보』, 49 (2017).
오창은. “결여의 증언. 보편을 향한 투쟁 - 1960년대 비동맹 중립화 논의와 민족적 민주주의.”『한국문학논총』, 72 (2016).
우승지. “남북화해와 한미동맹관계의 이해. 1969-1973.”『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1) (2004).
우승지. “남북한 관계 60년 분석 – 1948~2008.”『국제지역연구』, 17(2) (2008).
유예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공포와 죄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윤대석.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국어국문학』, 144 (2006).
이남희.『민중 만들기』. 서울: 후마니타스, 2015.
이민영, “최인훈의『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연구 –‘구보’의 서명과 ‘후진국민’의 정체성.”『현대소설연구』, 58 (2015).
이소영. “김원일 · 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고아의 형상화 연구 – 민주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이소영. “1930년대 후반 김남천 소설의 이체(異體) -「장날」과「이리」에 나타난 몽타주(montage)와 구상력(構想力)을 중심으로.”『우리말글』, 71 (2016).
이찬수. “한국 종교의 평화 인식과 통일 운동.”『종교문화비평』, 23 (2013).
임미주. “『천변풍경』의 정치성 연구.”『구보학보』, 10 (2014).
장문석. “‘우리 말’로 ‘사상 (思想)’하기?! - 후기식민지 한국과『광장』의 다시 쓰기.”『사이間SAI』, 17 (2014).
장문석.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学の会)’.”『한국학연구』, 40 (2016).
장문석. “밤의 침묵과 자유의 타수 – 김수영의 해방공간과 임화의 4 · 19.”『반교어문연구』, 44 (2016).
장문석. “냉전 너머의 아시아를 상상하기?! - 최인훈과 아시아 · 아프리카작가회의의 어긋난 마주침에 관한 몇 개의 주석.”『한국언어문화』, 62 (2017).
장성규. “김남천 소설의 서술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둥정신(Bandung Spirit)’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1955~1965).”『사이間SAI』, 15 (2013).
장세진. “강박으로서의 식민(지). 금기로서의 제국을 넘어 – 1960년대 한국 지식인

들의 일본상상과 최인훈 텍스트 겹쳐 읽기.”『비교한국학』, 24(3) (2016).
장세진. “은유로서의 포로 - 수용소의 삶과 ‘적/동지’의 구별 정치.”『상허학보』, 46 (2016).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 개념. 쟁점. 추진방향.”『통일문제연구』, 53 (2010).
정근식.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 임형택 외.『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2. 서울: 소명출판, 2014.
정영훈. “1970년대 구보 잇기의 문학사적 맥락.”『구보학보』, 9 (2013).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역.『세상의 이치』. 서울: 문학동네, 2005.
홍석률. “1970년대 초 남북대화의 종합적 분석 – 남북관계와 미중관계, 남북한 내부 정치의 교차점에서.”『이화사학연구』, 40 (2010).
홍석률. “냉전의 예외와 규칙- 냉전사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역사비평』, 봄 (2015).
홍종욱. “해방을 전후한 주체 형성의 기도 – 좌파 지식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윤해동 외편.『근대를 다시 읽는다』1. 서울: 역사비평사, 2006.
홍종욱.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한국 자본주의론 – 내재적 발전론으로서의 ‘종속 발전’론.”『아세아연구』, 55(3) (2012).
홍종욱. “일본 지식인의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의 발견 – 다케우치 요시미와 가지무라 히데키를 중심으로.”『사학연구』, 125 (2017).

梶村秀樹.『朝鮮史 - その発展』. 東京: 講談社, 1977.
下斗米伸夫.『アジア冷戦史』. 東京: 中央公論社, 2004.
吉本惣一.『蘇る「社会分業論」』. 東京: 創風社, 2016.
ポーラ美術館学芸部 編.『ピカソとシャガール - 愛と平和の讃歌』. 箱根町: ポーラ美術館, 2017.
E. デュルケム. 井伊玄太郎訳.『社会分業論 (上)』. 東京: 講談社, 1989.
H. アレント. 阿部 斉訳.『暗い時代の人々』. 東京: 河出書房新社, 1972.

자료

최인훈. “GREY倶樂部 顚末記.”『자유문학』, 10월호 (1959).
최인훈. “作者所感 - 風聞.”『새벽』, 11월호 (1960).
최인훈.『광장』. 서울: 정향사, 1961.

최인훈. “총독의 소리 II.”『월간중앙』, 4월호 (1968).
최인훈. “주석의 소리.”『월간중앙』, 6월호 (1969).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월간중앙』, 2월호 (1970).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2.”『창작과비평』, 봄호 (1970).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월간중앙』, 3월호 (1970).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3.”『신상』, 겨울호 (1970).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4.”『월간문학』, 1월호 (1971).
최인훈. “갈대의 사계 1~12.”『월간중앙』, 8월호 (1971) ~ 7월호 (1972).
최인훈.『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서울: 삼성출판사, 1973.
최인훈.『길에 관한 명상』. 서울: 청하, 1989.
최인훈. “[나의 첫 책] 제3국행 선택한 한 ‘전쟁포로’ 이야기 - 개작 거듭한 장편소설「광장」.”『출판저널』, 82 (1991).
최인훈.『화두』 2. 서울: 민음사, 1994.
최인훈 · 김치수. “4 · 19 정신의 정원을 함께 걷다.”『문학과사회』, 봄호 (2010).

김수영.『김수영 전집』 2. 서울: 민음사, 2003.
임화.『임화문학예술전집5 – 비평2』. 서울: 소명출판, 2009.
『경향신문』.『동아일보』.

Days waiting for Reunification: Choi In-hoon just before The 7.4 North-South Joint Statement and *One Day of the Novelist Gubo*

Jang, Moon-seok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Due to the Détente around 1970 and the inter-Korean Red Cross talks(1972), tensions between two Koreas have eased. Choi In-hoon, a novelist who came south over the border during Korean War, wrote *One Day of the Novelist Gubo*(1970-1972) under the social atmosphere of Détente. In the 1960s, Choi tried to imagine Asia beyond the Cold War by writing novels on the theme of neutrality and the Third World. These novels in 1960s focused on political themes and intellectuals. *One Day of the Novelist Gubo* written in the early 1970s, however, shows that Choi's vision beyond Cold-war has changed. Although this novel was initially planned as a series of loose short stories, Choi got a chance to serialize it in a monthly magazine, and *One Day of Novelist Gubo* changed to monthly report on Korean society and culture under Détente. Gubo, protagonist who came south over the border during Korean War, showed deep interest in changes of the Cold War system and inter-Korean contact through TV news and newspapers. Gubo continued to experience expectation, disappointment, surprise and boredom through news. Gubo, consequently, changed his thinking about unification through one year of experience. Gubo thought that unific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not by the state.

He explored the reason why the public sphere was not formed in Korea. He also intended to build an alternative public sphere in the region based on intimate sphere with respect of daily lives of the people. The conclusion of Gubo can be named as "public unity theory coming out to the square". Gubo, an expert in social field of literature, tried to publish the works of writers who went north over the border who was banned after the division. His attempt was not merely to link the divides of literary history, but to form a common 'tradition' that coul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various divisions of art. *One Day of the Novelist Gubo* is a novel in which a man who defected to South Korea imagines unification in everyday life. Through this novel, Choi interpreted the unification as the discouse of the people and tried to imagine peace through social solidarity.

Key words: Détente, the inter-Korean Red Cross talks, The 7 · 4 North-South Joint Statement, unification, local, people, intimate sphere, alternative public sphere, 'public discourse of unification which come out public square', a man who came south over the border, writers who went to north over the border, Park Tae-won, Kim Yoon-shik, tradition, social solidarity, peace.

장문석(Jang, Moon-seok)

도쿄외국어대학 총합국제학연구원 외국인연구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 현대문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국/식민지와 냉전의 너머를 상상했던 동아시아의 사상과 학술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어문생활사와 출판문화사를 매개로 '앎-주체'의 역사를 아래로부터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상흔과 극복 - 1970년 김윤식의 도일과 비평", "김태준과 연안행", "전통지식과 사회주의의 접변 - 염상섭의 「현대인과 문학」에 관한 몇 개의 주석" 등이 있다.